

컨슈머인사이트

월간 국내·해외 여행 동향 보고

2023. 08

코로나 이후 급격하게 변화한 국내외 여행 생태계와 여행소비자 행태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해

첫째



현재의 국내외여행 소비자 행태를
월 단위로 추적 조사하여
여행 시장 상태를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둘째



코로나 이전(2019년)의 상황과
월 단위로 그 결과를 비교해
여행 시장의 회복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셋째



현상 평가와 과거대비 자료 분석을 통해
다가올 변화의 방향과 크기에 대한
합리적 예측을 가능하게 하여,



격변하는 여행 소비자 환경에 대한 시의성 있는 적응과 예측을 도와
여행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2023년 8월 국내·해외 여행 동향 요약

요약

국내외 여행의 ▲지난 1년간의 변화 ▲코로나 이전 대비 현 상황 ▲향후 전망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국내 여행	해외 여행
현황 - 숙박여행의 평균기간은 2.08박, 총 경비와 1일당 경비는 각각 23.8만원, 7.7만원으로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음. '호텔' 이용률이 아직 높으나(26.9%) '23년 3월(32.5%) 이후 하락세임. - 여행정보 검색은 '공공 · 상업적인 채널'보다 'SNS'가 압도적 우위임.	현황 - 해외여행 지역은 아시아권의 점유율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유럽이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함. - 이에 따라 해외여행의 평균기간은 6.18박(TCI 115), 총 경비와 1일당 경비는 각각 183.8만원(TCI 133)과 25.6만원(TCI 119)으로 지난 6월에 비해 상승함. 이는 여름휴가의 효과로 보임.
코로나 이전 대비 TCI로 보면, 여행 경험률만 100에 미치지 못하고(97), 그 외 여행 기간, 총 비용, 일 평균 비용은 모두 100을 넘어(102~107) 코로나 이전을 상회함.	코로나 이전 대비 지난 6개월 간 해외여행 경험률은 급상승세로 28.2%에 달했으나, 코로나 전 40%에는 크게 미치지 못함(TCI는 71).
전망 - 높은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행비용의 감소세가 계속 되고 있음. - 이는 여행소비의 축소가 여행산업 전체의 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 줌. ➡ '23년 8월 '이달의 토픽': 알뜰여행에서 초진출여행으로 여행산업 위축	전망 - 해외여행 경험률(지난 6개월)이 코로나 전 수준에 이르기에는 현 추세로 보면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여행지역은 아시아지역으로의 쏠림 현상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여행실태							여행 계획		
	여행 경험률	기간	총 비용	일 평균 비용	여행 지역	주 활동(목적)	숙박	여행 계획률	여행 지역	주 활동(목적)
국내여행	70.6% (지난 3개월)	2.08(박)	23.8(만원)	7.7(만원)	1경상권 26.1%	1자연경관 25.0%	1호텔 26.9%	71.7% (향후 3개월)	1경상권 24.8%	1자연경관 26.3%
TCI	97	102	107	105	101	95	120▲	99	94	94
해외여행	28.2% (지난 6개월)	6.18(박)	183.8(만원)	25.6(만원)	1아시아 78.0%	-	-	43.9% (향후 6개월)	1아시아 75.4%	-
TCI	71▽	115▲	133▲	119▲	104	-	-	85▽	113	-

* TCI(Travel Corona Index 여행 코로나 지수)는 2023년 당월 결과값을 '코로나 발생 전년(19년) 동월 결과값'으로 나눈 수치임
: (2023년 8월 결과) / (2019년 8월 결과) * 100

** ▲▽는 TCI(여행 코로나 지수) 100 대비 ±10 이상인 수치임

CONTENTS

I. 조사개요

II. 국내여행

II-1. 국내여행 동향

II-2. 국내여행 계획

III. 해외여행

III-1. 해외여행 동향

III-2. 해외여행 계획

- 해당 자료는 여행전문 리서치 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2015년 8월 부터 매주 시행하고 있는 '주례 여행 행태 및 계획 조사'를 기초로 함.

모집단

표본추출틀

표본규모

표본추출방법

자료수집 방법

표본의구성(할당)

조사기간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 컨슈머인사이트 86만 온라인 비편향 패널
- 매주 500명 (연간 누적 26,000명, 3개월 내 동일응답자 참여 불가)
- 성X연령 및 지역별 할당 후 무작위 추출
- Online/Mobile - 구조화된 온라인 설문지를 통한 이메일 조사

		표집 사례수	
		사례수(명)	구성비
8월 전체		(2,000)	100.0
성별	남성	(1,017)	50.9
	여성	(983)	49.1
연령대	20대	(346)	17.3
	30대	(356)	17.8
	40대	(435)	21.7
	50대	(464)	23.2
	60대 이상	(399)	19.9
성BY 연령대	남성 20대	(181)	9.0
	남성 30대	(184)	9.2
	남성 40대	(220)	11.0
	남성 50대	(236)	11.8
	남성 60세 이상	(196)	9.8
	여성 20대	(165)	8.2
	여성 30대	(172)	8.6
	여성 40대	(215)	10.8
	여성 50대	(228)	11.4
	여성 60세 이상	(203)	10.2

		표집 사례수	
		사례수(명)	구성비
결혼 여부	미혼	(658)	32.9
	기혼	(1,227)	61.3
	기타	(115)	5.7
가구 상황	미혼	(658)	32.9
	신혼기(자녀 없음)	(135)	6.7
	자녀 유아&성장 (막내 입학 전~초등생)	(341)	17.0
	자녀 성장(막내 중고생)	(171)	8.5
	자녀 성인(막내 대학)	(511)	25.5
	자녀 독립(막내 결혼)	(184)	9.2
가구 월소득 (모름 제외)	300만원 미만	(268)	14.3
	300~500만원 미만	(511)	27.3
	500~700만원 미만	(527)	28.1
	700만원 이상	(567)	30.3

- 매주 '월요일~일요일' 자료 수집 : 연중 무휴(연 52주)

2023년 7월 (전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5	26	27	28	29	3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30	24 31	25	26	27	28	29

2023년 08월 (당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30	3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광복절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2

2023년 09월 (익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7	28	29	30	3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추석	30

2022년 8월 (전년 동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3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광복절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2	3

CONTENTS

I. 조사개요

II. 국내여행

II-1. 국내여행 동향

II-2. 국내여행 계획

III. 해외여행

III-1. 해외여행 동향

III-2. 해외여행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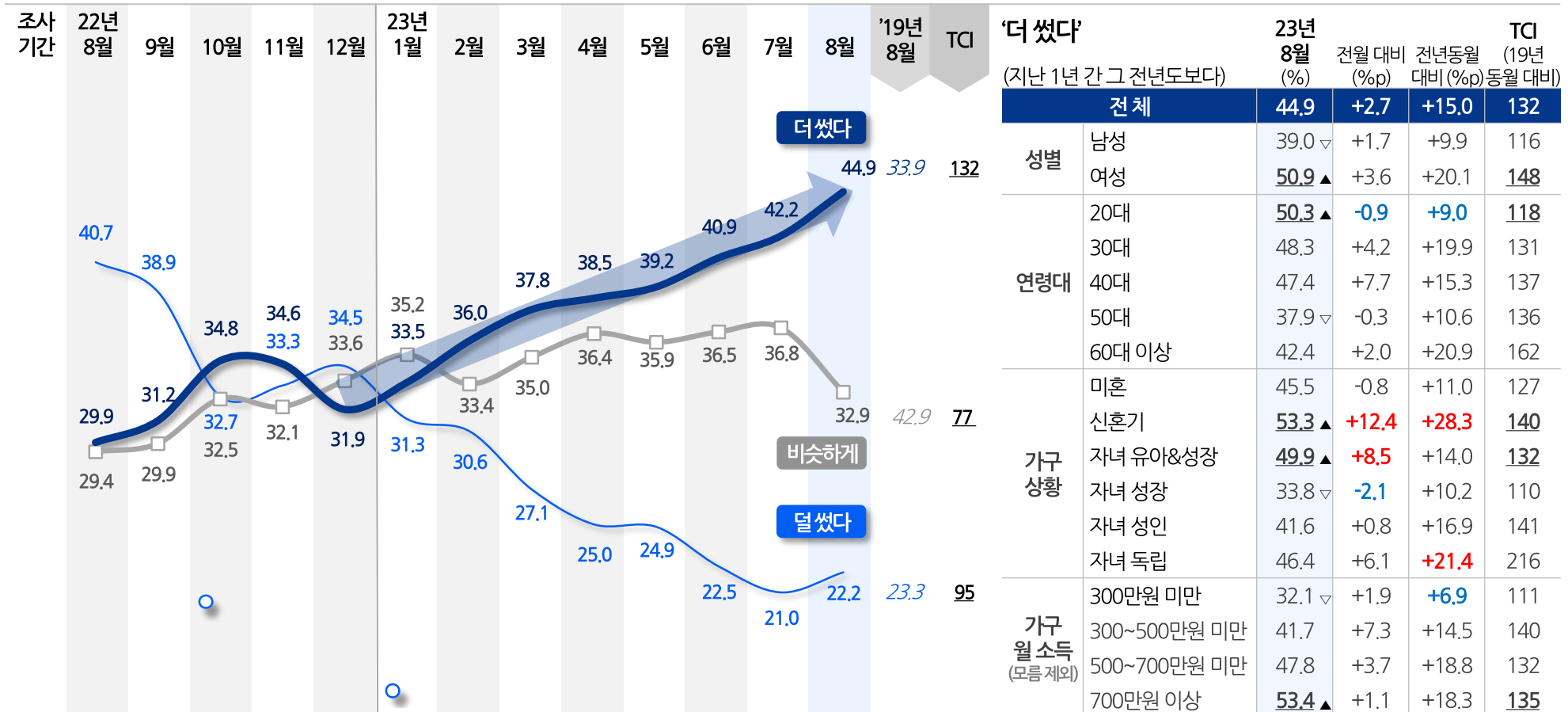
1. 여행비 지출 동향 (지난1년)

II -1. 국내여행 동향

8 /40

- 지난 1년간 관광·여행비를 그 전년도에 비해 ‘더 썼다’는 반응은 지난해 말 이후로 꾸준히 상승했고,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하여 44.9%에 이름. 코로나 이전 동월(‘19년 8월: 33.9%) 대비 TCI는 132로 물가상승의 결과로 보임.
- 반면 지난 1년간 ‘덜 썼다’는 응답은 40.7%에서 22.2%로 크게 감소해 비용증가가 근래에 이루어졌음을 보여줌.
- 인구특성별로는 △여성 △20대 △신혼기 △자녀 유아&성장기 △가구 월 소득 700만원 이상에서 ‘더 썼다’ 응답이 많으며, 특히 △여성의 TCI가 148로 가장 높음

[단위: %]



※ 조사표본수: 주 500명, 월 2,000명(5주가 있는 월은 2,500명)

분석표본수: 주별 분석은 자료의 안정성을 위해 그 전 주와 단순이동 평균함(1,000명)

SQ1-1.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국내·해외 합하여 관광·여행비로 쓴 비용이 그 전년도에 비해 어느 정도 됩니까?

* ▲▽ 표시된 수치는 전체 값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p<0.05)

** 비교%p는 상·하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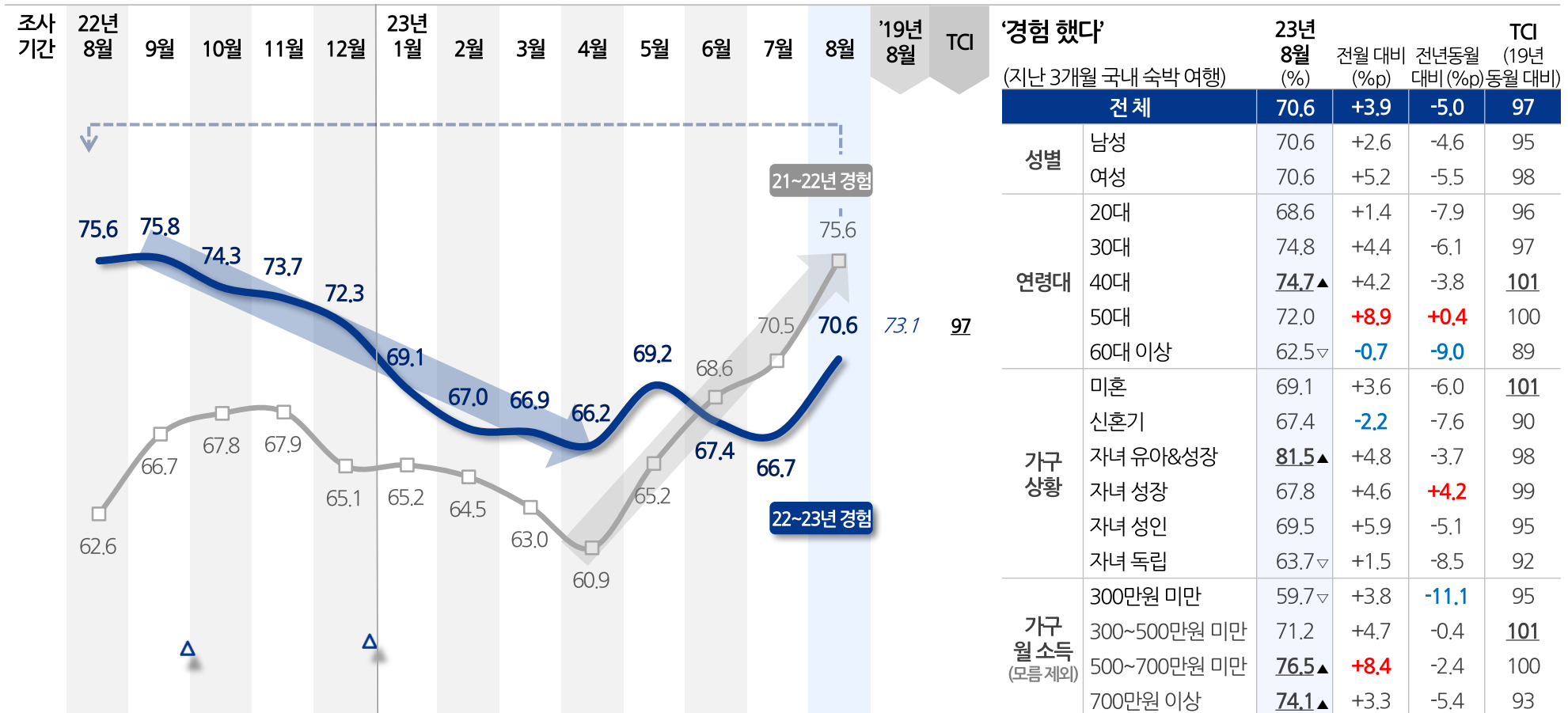
2. 국내 숙박여행 경험률 (지난 3개월)

II-1. 국내여행 동향

9/40

- 지난 3개월 간 국내 숙박여행 경험률은 70.6%로 여름휴가 여행으로 전월 대비 급등함. 이는 전년 동월(75.6%) 대비 5.0%p 낮으나, 전월(66.7%) 대비 3.9%p 높은 수치임.
- 인구특성별로는 △40대 △자녀 유아 및 성장기 △가구 월소득 500만원 이상이 높음.
- 국내 숙박여행 경험률은 여름휴가 시즌을 맞아 급등하였으나, TCI지수는 97로 코로나 이전보다 다소 낮음.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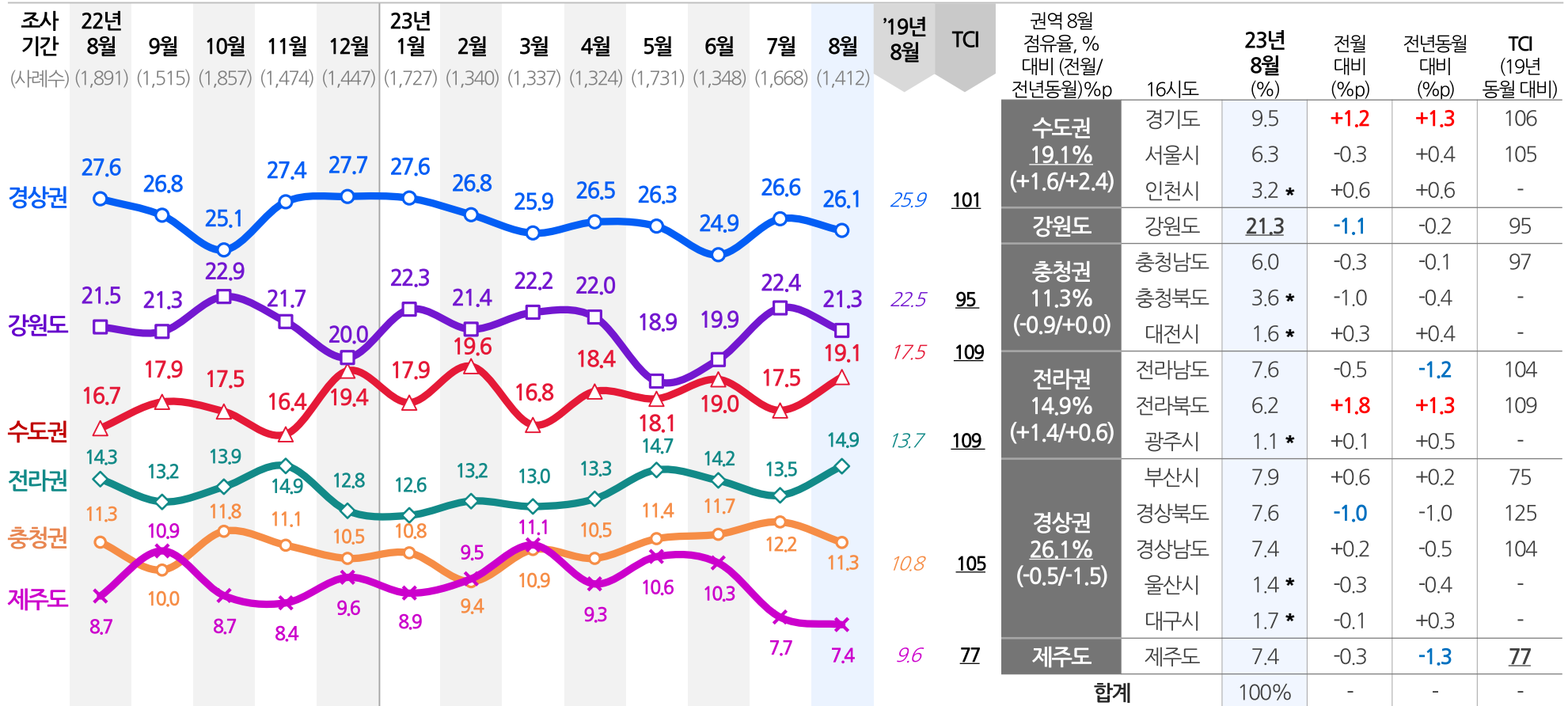
※ 조사 표본수 : 주 500명, 월 2,000명(5주가 있는 월은 2,500명)
 분석 표본수 : 주별 분석은 자료의 안정성을 위해 그 전 주와 단순이동 평균함(1,000명)
 SQ4-0-1. 귀하께서는 지난 3개월간 1박 이상의 일정으로 여행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 표시된 수치는 전체 값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p<0.05)
 ** 비교%p는 상하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3. 국내 숙박여행 지역

- 당월 숙박 여행지 점유율은 '경상권(26.1%)', '강원도(21.3%)', '수도권(19.1%)' 순임.
- 전년 동월 대비 여행지 점유율이 상승한 지역은 '수도권'(2.4%p)임.
- TCI는 수도권, 전라권이 109로 가장 높은 반면, 제주도는 77로 가장 낮음.

[단위 : %]



AA2-1. 가장 최근에 다녀온 국내 여행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만 선택해주세요.

* 5% 이하 해석에유의
** 비교%p는상·하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4. 국내 숙박여행 기간 및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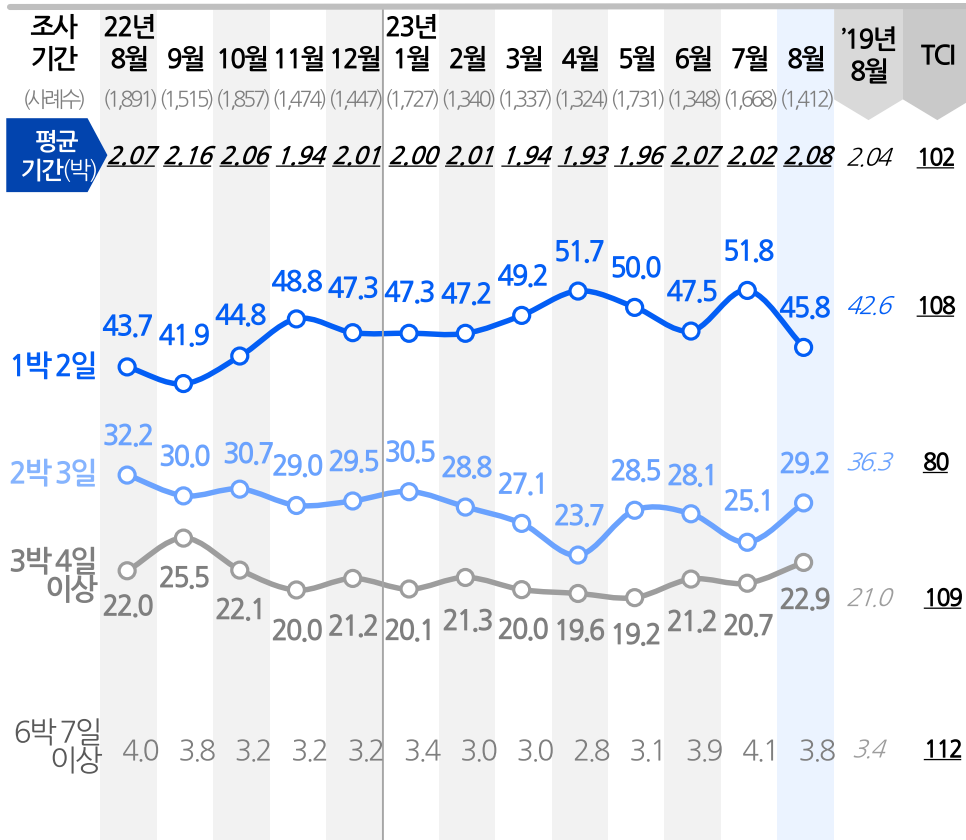
II-1. 국내여행 동향

11/40

- 여행 기간은 '단기 여행(1박 2일)'이 45.8%, 2박 3일은 29.2%로, 2박 이내 여행이 전체의 ¾이며, 평균 숙박기간은 2.08박이었음.
- 1인당 여행 총 경비는 23.8만원, 1일당 경비는 7.7만원으로 지난 1년 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였으나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함.
- 여행 기간과 총 경비 TCI는 각각 102, 107로 '19년 8월 대비 소폭 높음.
-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19년 8월 대비 7%의 경비 상승(TCI 107)은 소비자들의 상당한 비용절감 노력이 있었음을 의미하며, 여행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어렵게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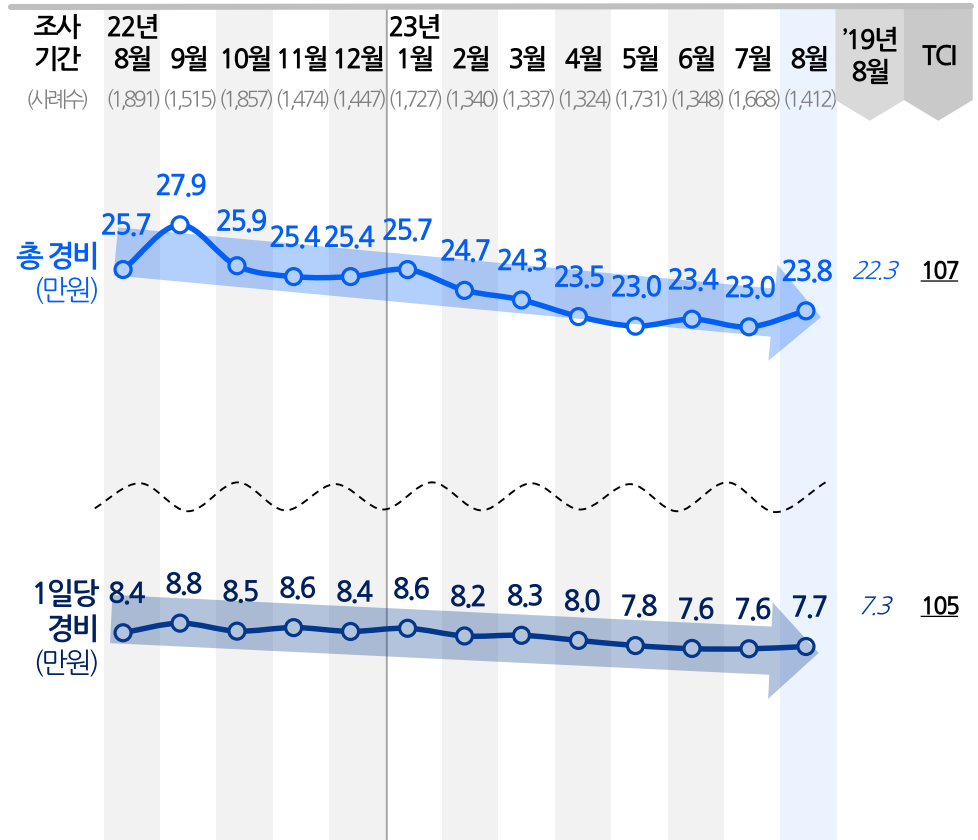
여행 기간

[단위 : %]



여행 비용

[단위 : 만원]



AA3-1. 최근에 다녀온 'OO' 여행 시기를 달력을 보고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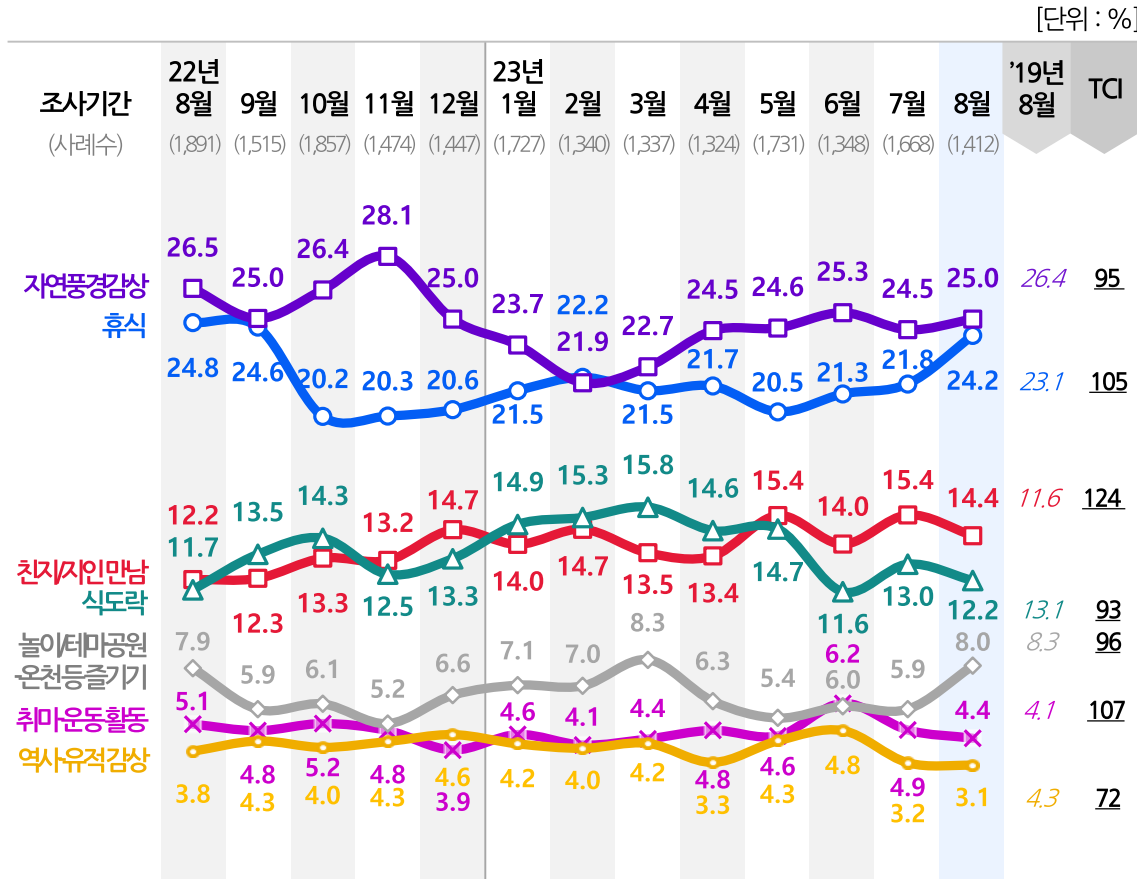
AA17. 'OO' 여행을 위해 1인 기준으로 총 얼마를 지출하셨습니다?

5. 국내 숙박여행 주 활동

II -1. 국내여행 동향

12/40

- 국내여행 주 활동은 ‘자연 풍경 감상’이 25.0%로 가장 높으며, 이어 ‘휴식(24.2%)’, ‘친지/지인 만남(14.4%)’, ‘식도락’(12.2%) 순임.
- ‘자연 풍경 감상’은 강원도와 제주도에서, ‘휴식’은 수도권에서, ‘놀이/테마공원-온천 등 즐기기’는 강원도에서 높았음.
- TCI가 가장 높은 활동은 ‘친지/지인 만남(124)’으로 대인관계 중심 여행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



▶ 여행지역별 주 활동 (당월 기준)

[단위 : %]

	전체	여행 지역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강원도	제주도
(사례수)	(1,412)	(270)	(159)	(368)	(210)	(301)	(104)
자연 풍경 감상 (산, 바다 등)	25.0	11.8▽	29.0	25.1	23.3	31.5▲	37.6▲
휴식	24.2	29.6▲	17.6▽	21.0	22.4	28.1	24.1
친지/친구/ 친척 만나기	14.4	21.9▽	15.8	17.1	16.2	4.6	7.7
식도락 (지역 특색/제철 음식)	12.2	5.5▲	9.4	14.4	15.3	14.2▽	13.5▽
놀이/테마공원- 온천 등 즐기기	8.0	10.4	6.9	7.6	4.3▽	10.9▲	3.8
취미-운동 활동 (등산, 낚시, 골프 등)	4.4	2.6	8.1▲	1.9▽	5.7	5.6	6.7
역사-유적 감상 (유적지, 박물관 등)	3.1	4.8	2.5	4.6	2.8	1.0▽	1.0

AA15-2. 'OO' 여행을 다녀온 주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만 선택해주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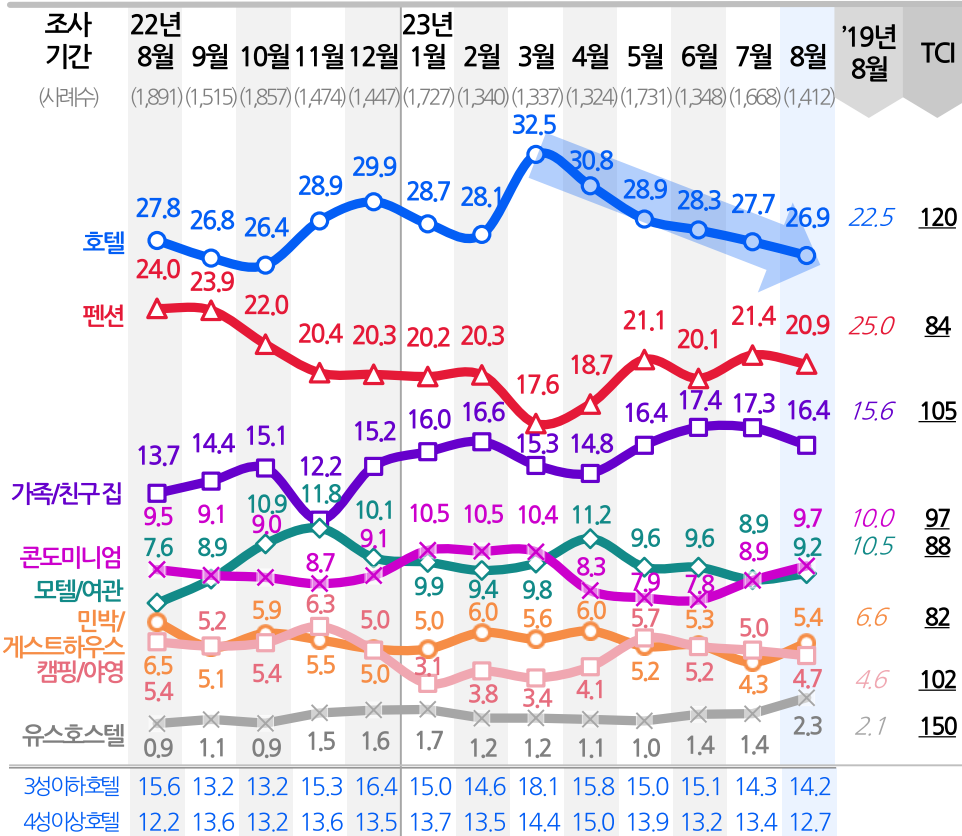
* ▲▽ 표시는 전체 값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p<0.05)

6. 국내여행 숙박 장소 및 선택 이유

- 숙박 장소는 '호텔(26.9%)'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펜션(20.9%)', '가족/친구 집(16.4%)'의 순임.
- '23년 3월 이후 호텔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한 반면, 콘도미니엄과 모텔/여관, 민박/게스트하우스 이용률은 여름휴가의 효과로 전월 대비 상승함.
- 호텔 TCI는 120으로 높으나 '23년 3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숙박 업소 선호 이유의 TCI는 '숙박비용'이 114로 가장 높았음.
이는 숙박장소 선택에 비용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고비용인 호텔의 지속적 하락이 예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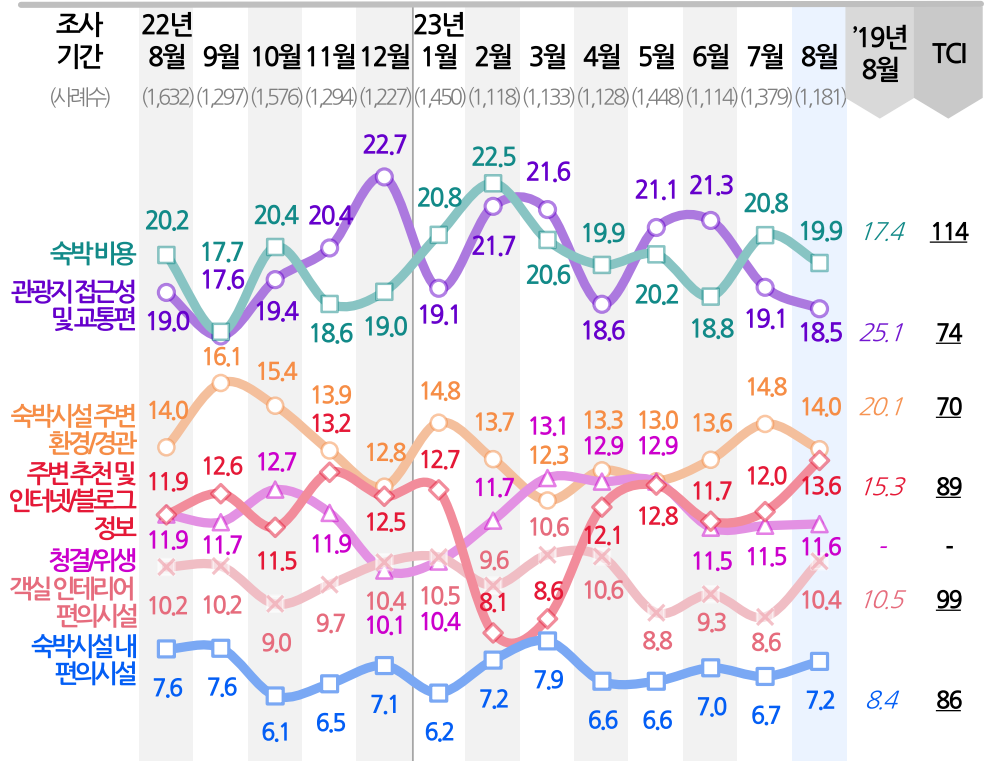
국내여행 숙박행태

[단위 : %]



숙박업소 선호이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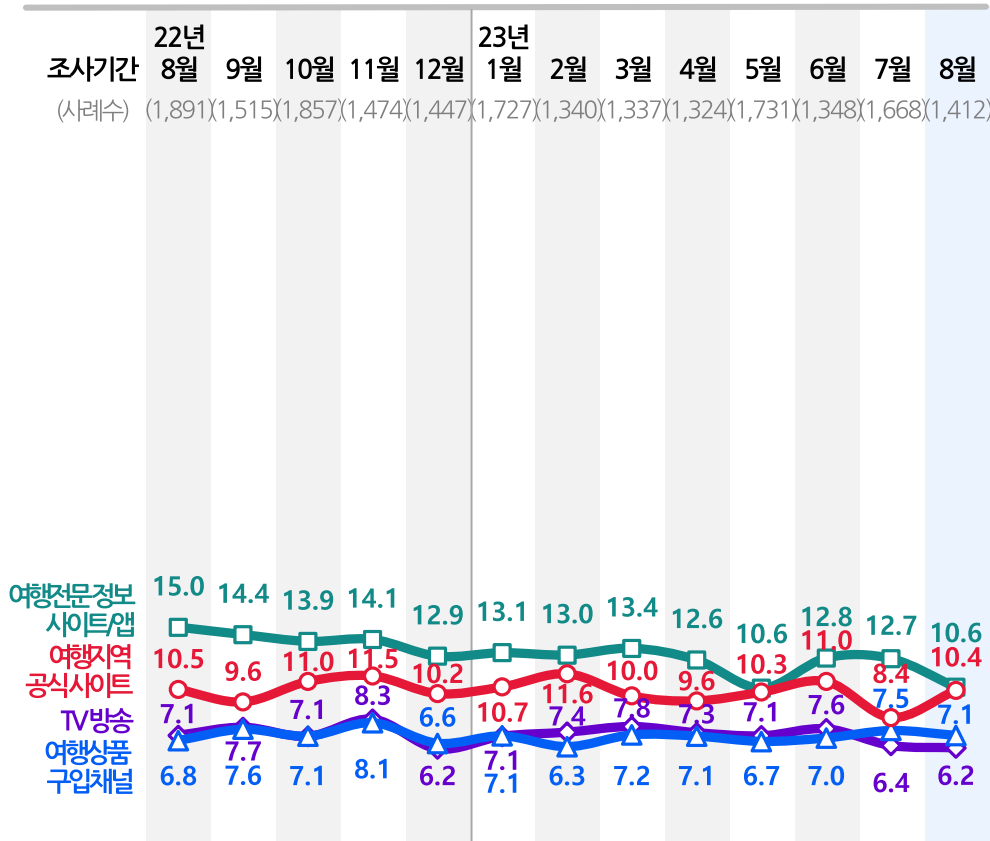
* 사례수 1,181명, 가족/친구집제외

7. 국내여행 여행지 정보탐색

- 국내 여행지 정보탐색 채널을 ‘전문/공식 정보채널’과 ‘SNS/커뮤니티 정보채널’로 나누어보면, ‘전문/공식’채널의 열세가 뚜렷함.
- 상업적이거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전문/공식 정보채널’ 4종은 모두 점진적으로 감소세임.
이는 ‘전문/공식 채널’의 쇠락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뜻함.
- 반면 소비자 개인 중심인 ‘SNS/커뮤니티 정보채널’에서는 ‘지인추천’과 ‘블로그’를 중심으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상업적인 채널, 진부한 공공채널보다는 소비자 개인의 체험 정보를 신뢰하고 이를 근거로 여행목적지를 찾는 경향이 대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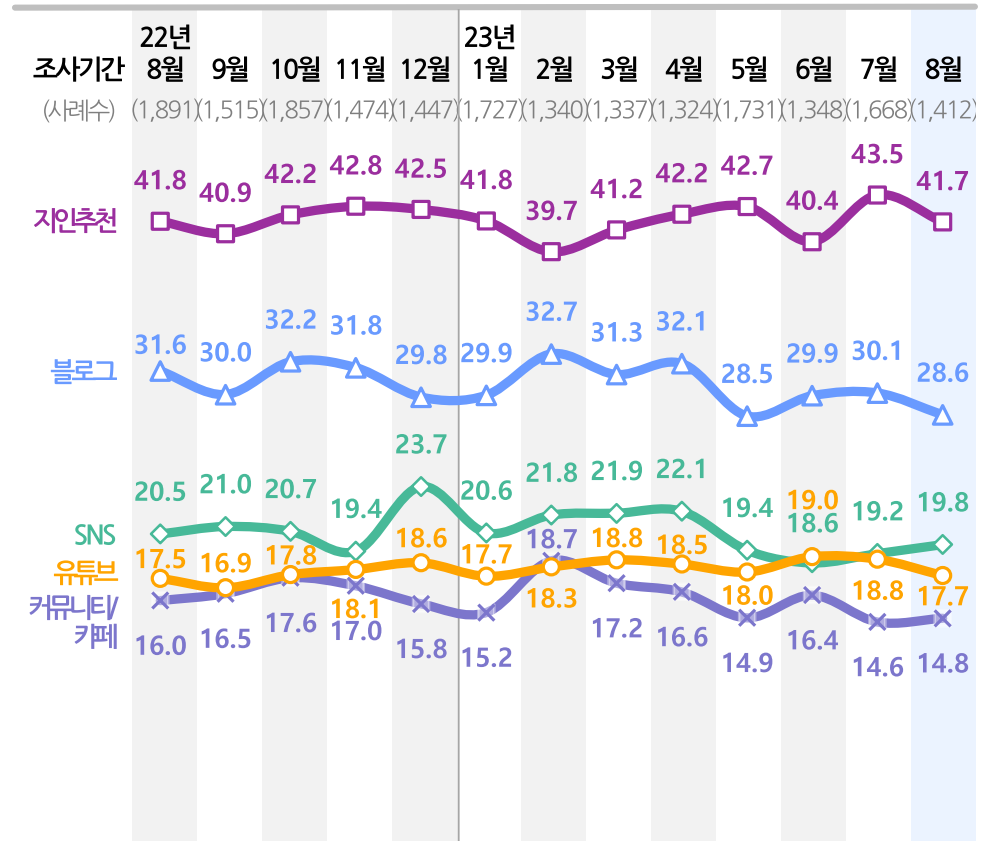
전문/공식 정보채널

[단위 : %]



SNS/커뮤니티 정보채널

[단위 : %]



AA2-3-0. 'OO' 여행의 각 준비단계에서 어떤 정보원을 참고하셨습니다?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여행지 결정 시)

8. 국내여행 숙소 정보탐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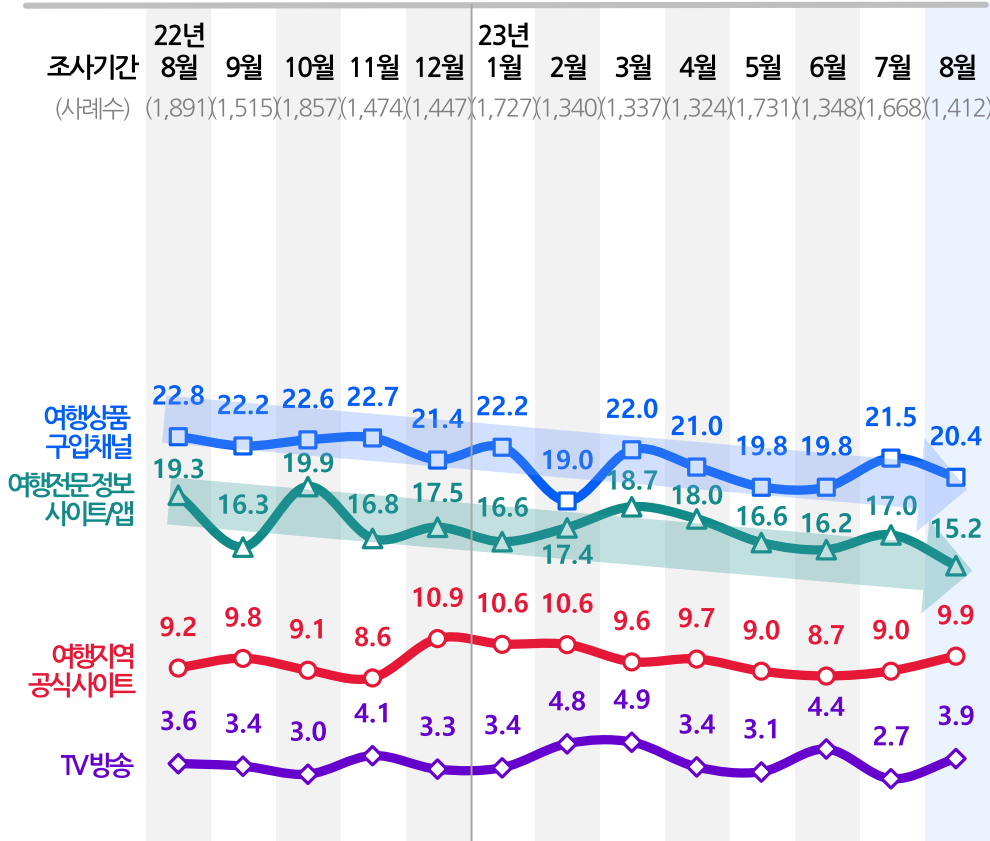
II-1. 국내여행 동향

15/40

- 여행지 내 '숙소' 정보탐색에 있어서도 여행지 만큼은 아니지만 '전문/공식 정보채널'의 부진이 뚜렷함. 특히 '여행상품 구입채널'과 '여행전문 정보 사이트/앱'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음.
- 'SNS/커뮤니티 정보채널'은 지난 1년간 큰 변화가 없으나 '지인추천'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행선지'나 '숙소' 모두 '지인추천'이 1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입소문'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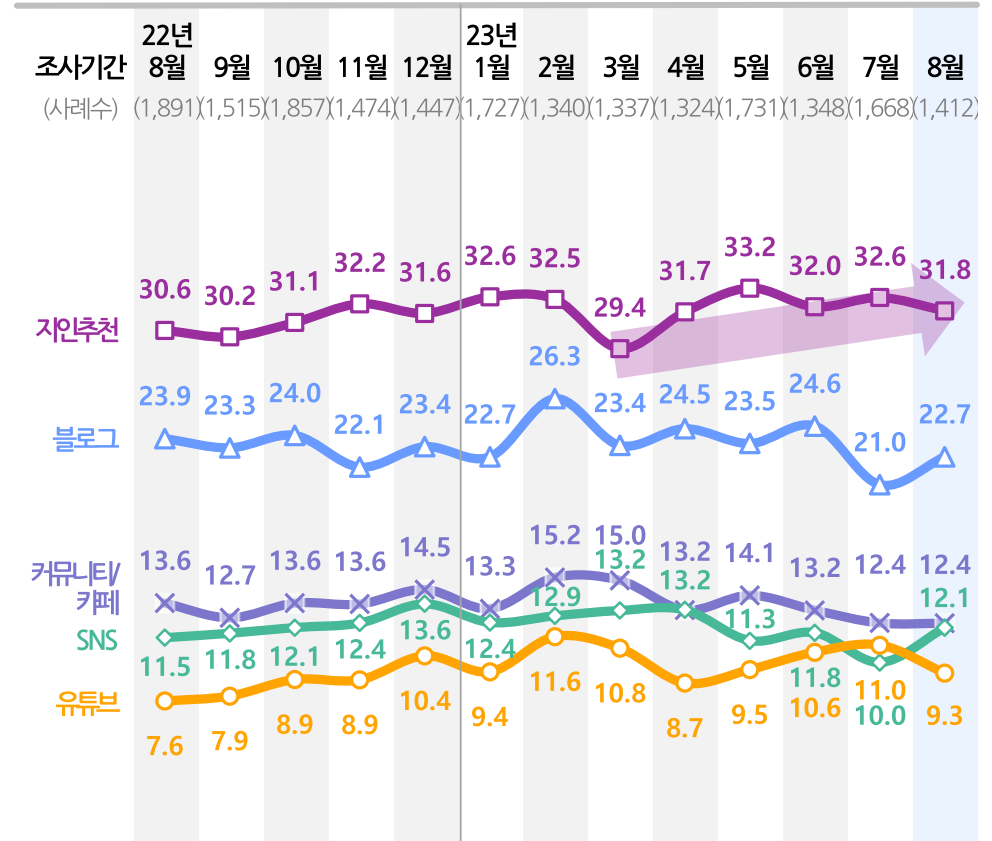
전문/공식 정보채널

[단위: %]



SNS/커뮤니티 정보채널

[단위: %]



AA3-0. 'OO' 여행의 각 준비단계에서 어떤 정보원을 참고하셨습니다가?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숙소)

CONTENTS

I. 조사개요

II. 국내여행

II-1. 국내여행 동향

II-2. 국내여행 계획

III. 해외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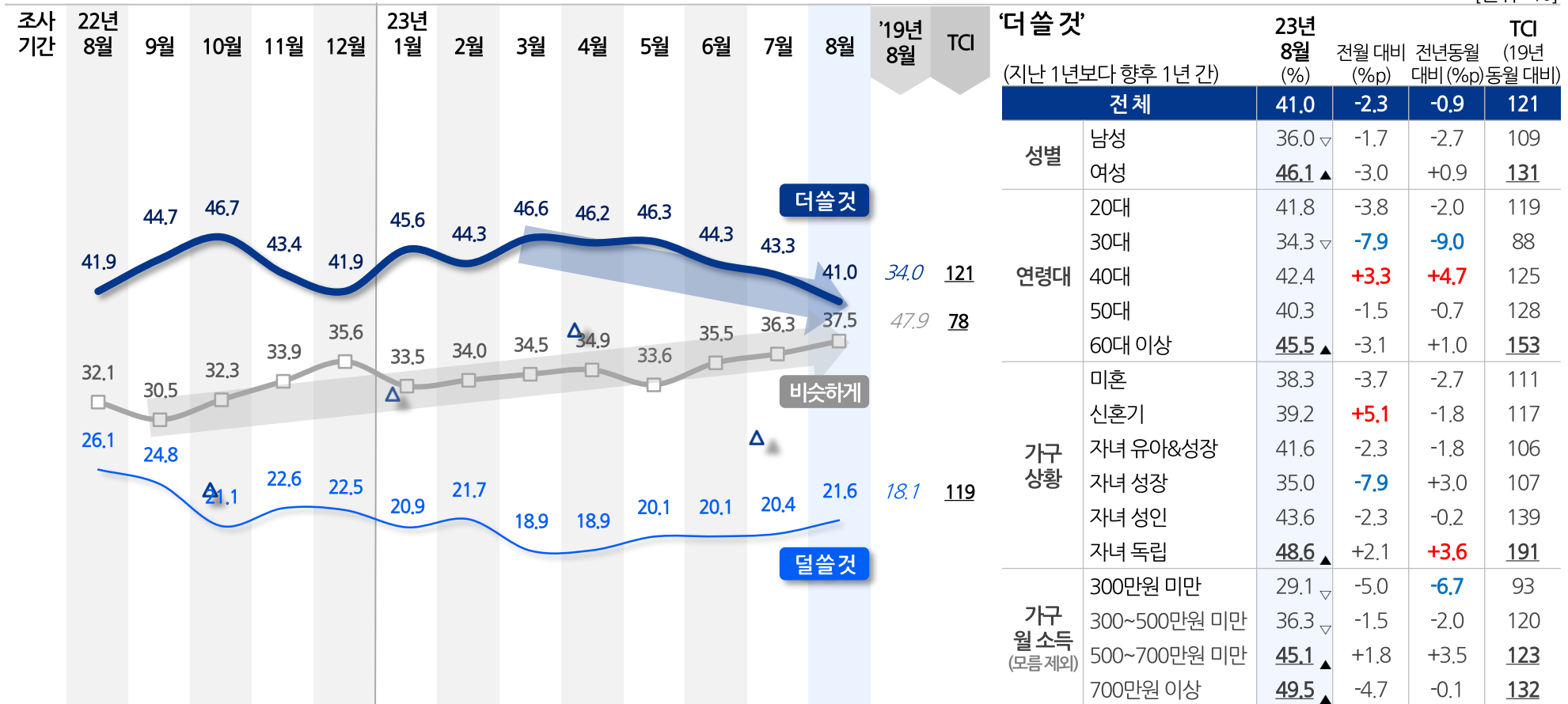
III-1. 해외여행 동향

III-2. 해외여행 계획

1. 국내 여행비 지출 의향 (향후 1년)

- 향후 1년간 지난 1년에 비해 관광·여행비를 ‘더 쓸 것’이란 반응은 감소, ‘비슷하게’는 미세하게 증가하는 추세임.
이는 개인의 의지 보다는 급속한 물가상승이라는 환경변화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보임.
- ‘더 쓸 것’의 TCI는 121로 코로나 이전 동월(19년 8월 34.0%) 대비 크게 높은 상태이나, ‘더 쓸 것’ 보다는 ‘더 쓸 수 밖에 없을 것’의 의미임.
- ‘덜 쓸 것’ 또한 TCI 119로 코로나 이전 동월(19년 8월 18.1%) 대비 다소 높은 상태인데, 이는 문자 그대로 ‘아껴야 할 것’의 의미로 보임.
- 인구특성별로는 △여성 △60대 이상 △자녀 독립 가구 △가구 월소득 500만원 이상에서 지출 증가예상이 높으며, TCI도 높음.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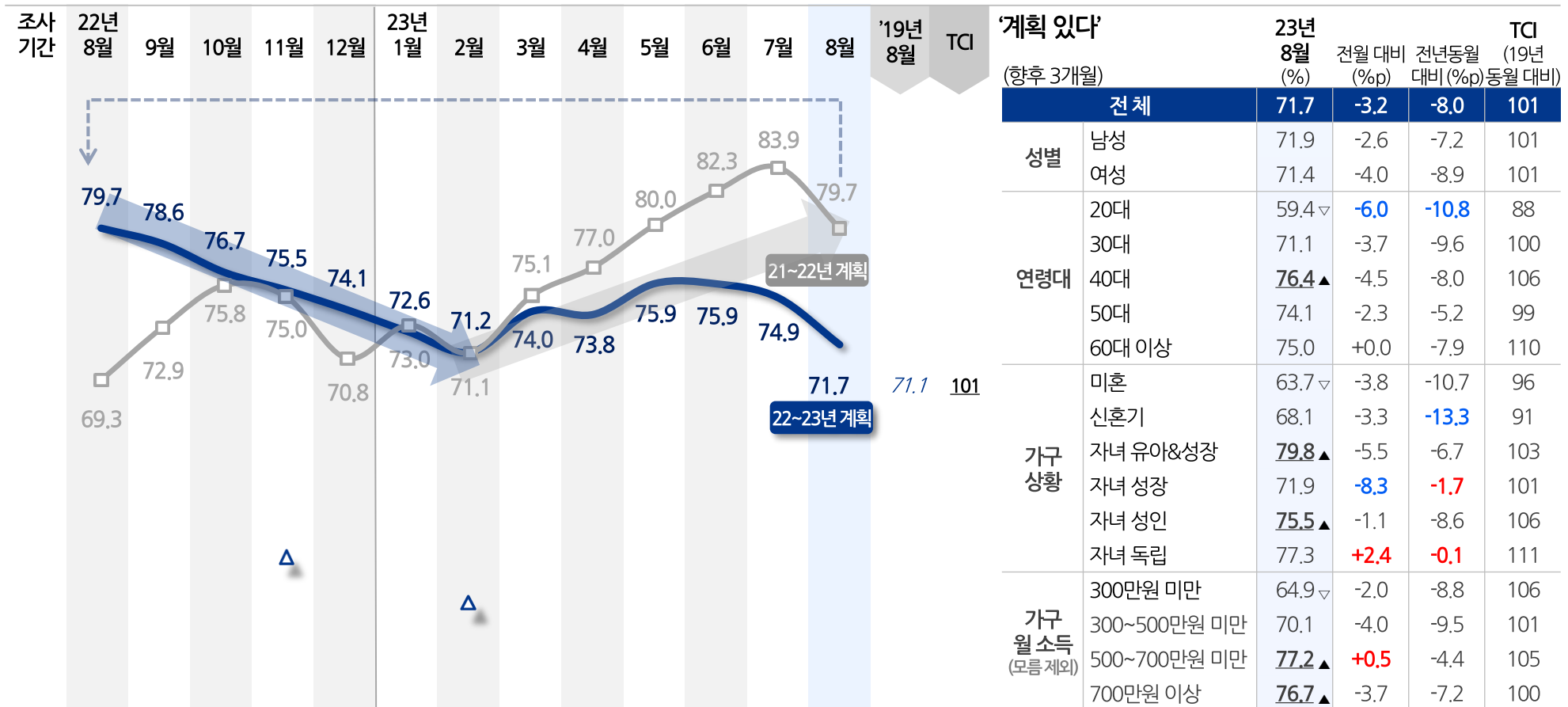
※ 조사 표본수: 주 500명, 월 2,000명(5주가 있는 월은 2,500명)
 분석 표본수: 주별 분석은 자료의 안정성을 위해 그 전 주와 단순이동 평균함(1,000명)
 SQ1-3. 국내여행만 보면 향후 1년간 쓸 관광·여행비가 지난 1년에 비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 ▲▽ 표시된 수치는 전체 값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p<0.05)
 ** 비교%p는 상하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2. 국내 숙박여행 계획률 (향후 3개월)

- 3개월 이내 국내 숙박여행 계획률은 '22년 초 급등하여 '22년 7월 83.9%로 비정상적인 고점에 이른 후 '23년 2월까지 급격한 하락세를 보임. 이후 5월 가정의 달에 정점을 찍고 휴가시즌이 끝나는 8월 하락세로 바뀜.
- TCI는 101로 코로나 이전 동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인구특성별로는 △40대 △자녀 유아&성장기 △가구 월소득 500만원 이상에서 높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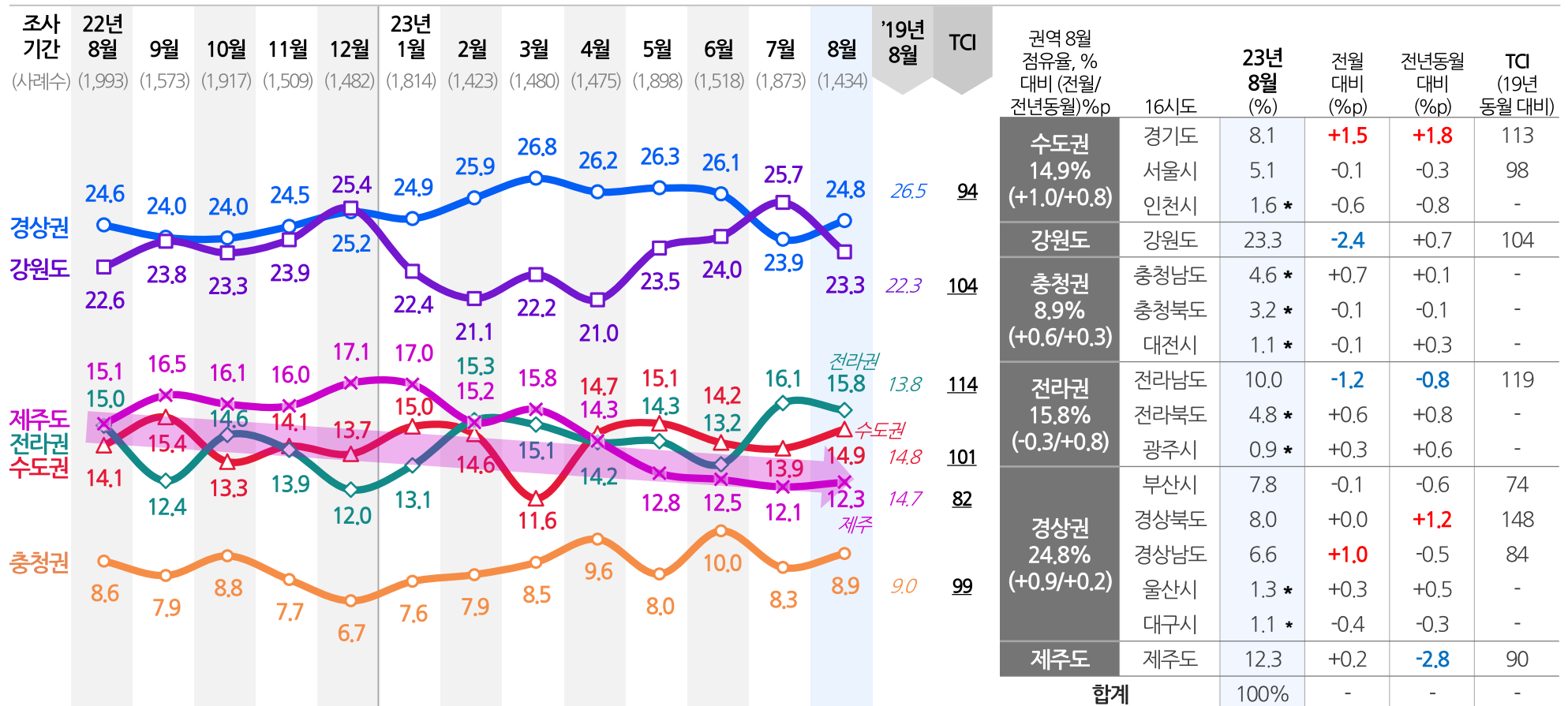
※ 조사 표본수: 주 500명, 월 2,000명(5주가 있는 월은 2,500명)
 분석 표본수: 주별 분석은 자료의 안정성을 위해 그 전 주와 단순이동 평균함(1,000명)
 SQ4. 귀하께서는 향후 3개월 내 1박 이상의 일정으로 여행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 표시된 수치는 전체 값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p<0.05)
 **비교%p는 상·하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3. 국내 숙박여행 예정 지역

- 국내여행 예정 지역은 ‘경상권(24.8%)’과 ‘강원도(23.3%)’가 높고, 이어 ‘전라권(15.8%)’, ‘수도권(14.9%)’, ‘제주도(12.3%)’ 순임.
- ‘경상권’은 전월에 ’23년 들어 처음으로 강원도에 선두 자리를 내주었지만 당월 다시 탈환함.
- 전년 동월 대비 제주도는 크게 하락했는데, 이는 해외여행 재개와 고물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 여행 예정지의 TCI는 전라권이 114로 가장 높고, 제주도는 82로 크게 낮음.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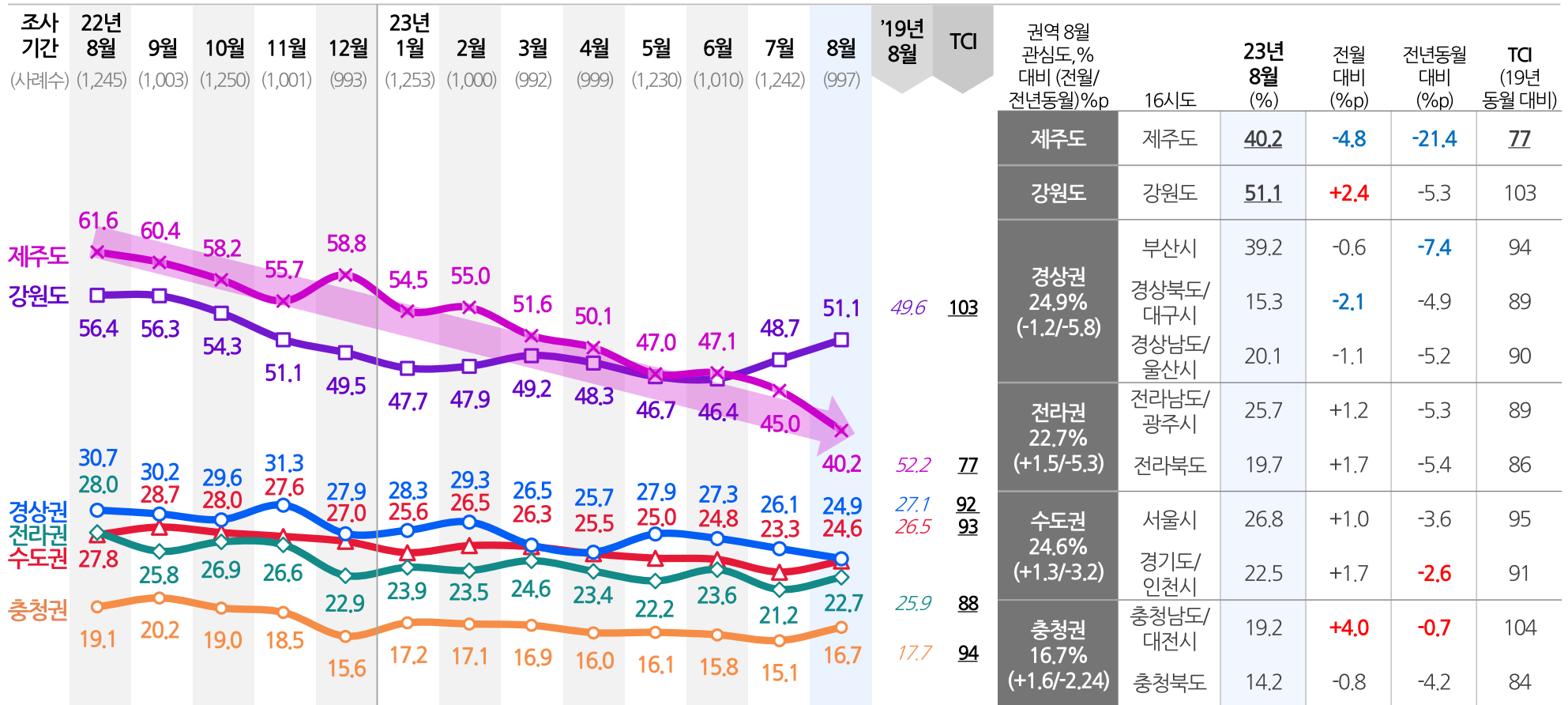
A2-1&2.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국내 여행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만 선택해주시시오.

* 5% 이하 해석에유의
* 비교%p는상·하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4. 국내 여행지 관심도

- 지난 1년 간 국내여행 지역 관심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아졌다')는 해외여행의 재개로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임.
- 제주도는 8월 기준으로 '22년 61.6%로 가장 높았으나, '23년 40.2%로 급하락해 강원도 밑으로 떨어짐.
- 강원도 역시 하락세이나 전월부터 제주도를 제치고 당월 51.1%로 선두 자리를 차지함.
- 제주도의 TCI는 77로 가장 낮은 수준임. 중국 변수의 급격한 증가(유입)에 잘 대응하는 것이 극히 중요함.

[단위 : Top2 box%(매우 많아졌다+많아졌다)]



SQ2-1. 요즘 000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예전에 비해 ...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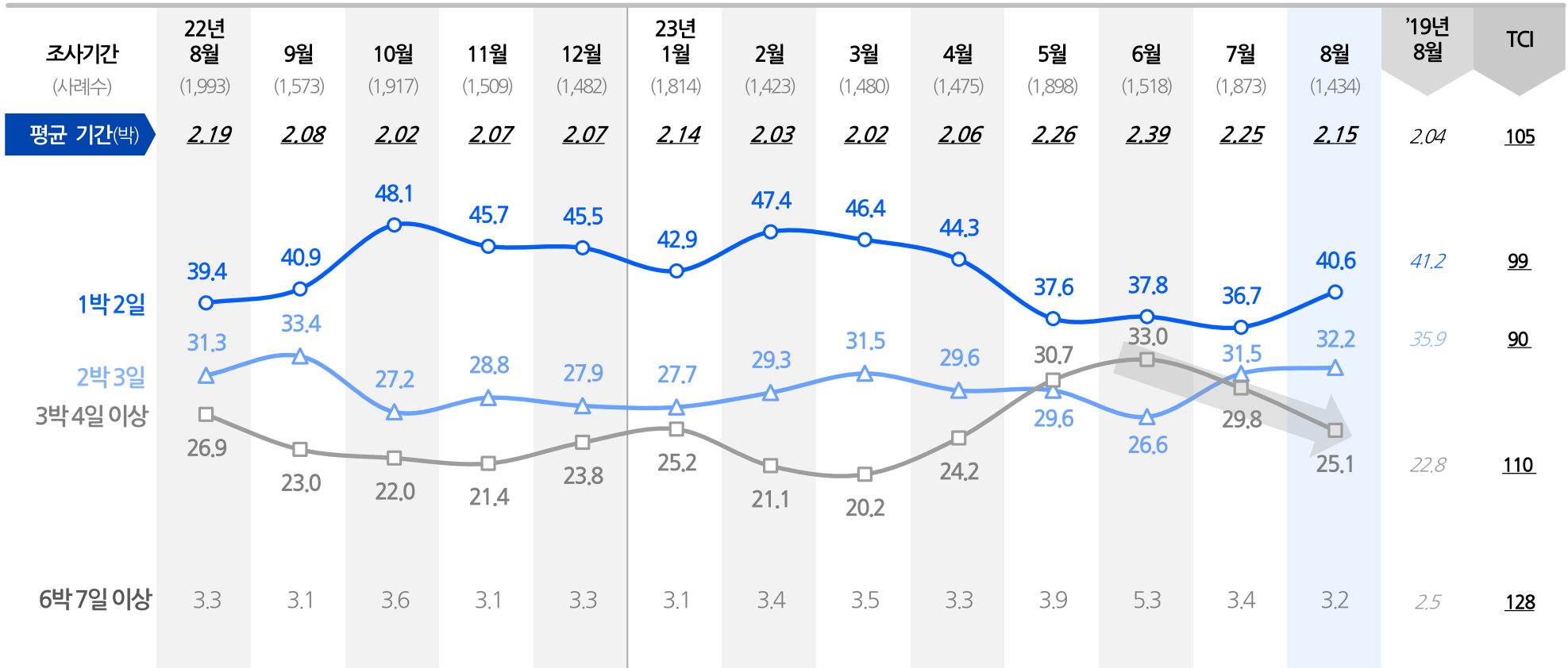
* 비교%p는 상·하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 권역 관심도는 해당 권역 내 시도 관심도의 산술평균임

5. 국내여행 계획 기간

- 당월 국내 숙박여행 계획 기간은 평균 2.15일로 여름휴가 계획이 반영되었던 6월 이후부터 하락하는 추세임.
- ‘3박 4일 이상’ 일정 또한 지난 7월 이후 급락하는 반면, ‘1박 2일’ 단기 여행 계획은 전월 대비 3.9%p 상승함.
- 숙박여행 계획 기간 평균의 TCI는 105임.

계획 중인 여행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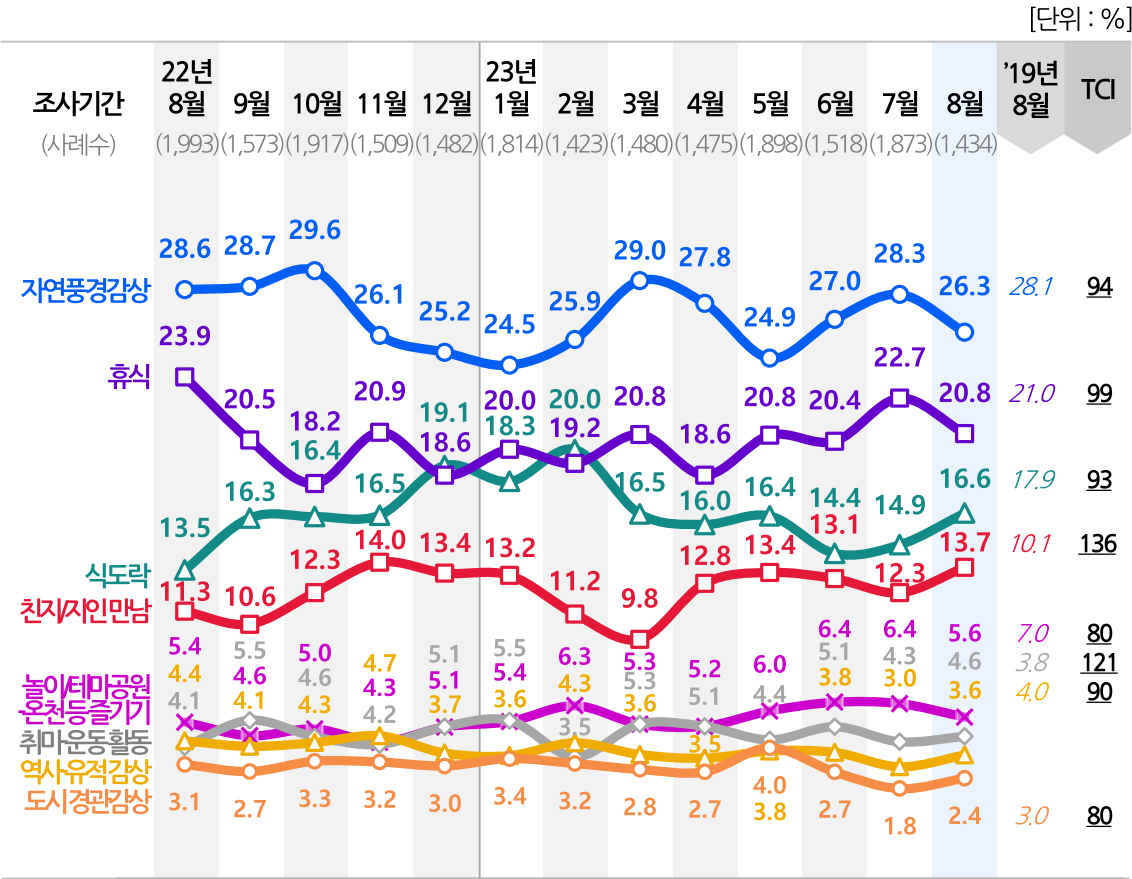
[단위 : %]



A3-1. 계획하고 계신 'OO' 여행 시기를 달력을 보고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국내 숙박여행 계획 활동

- 계획 중인 여행의 주 목적은 ‘자연 풍경 감상(26.3%)’, ‘휴식(20.8%)’, ‘식도락(16.6%)’ 등의 순임.
- ‘자연 풍경 감상’은 강원도와 제주도에서, ‘식도락’은 전라권에서, 친지/지인 만남은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계획 활동 TCI는 ‘친지/지인만남’이 136으로 가장 높았음. 이는 여행에서 대인관계의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임.



▶ 여행지역별 주 계획 활동 (당월 기준) [단위: %]

	전체	여행 지역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강원도	제주도
(사례수)	(1,434)	(213)	(128)	(355)	(226)	(334)	(177)
자연 풍경 감상 (산, 바다 등)	26.3	13.6▽	20.3	23.7	24.3	37.4▲	32.7▲
휴식	20.8	21.5	20.3	23.1	16.4	20.9	21.5
식도락 (지역 특색/제철 음식)	16.6	6.6▽	11.8	16.6	24.8▲	18.5	18.1
친지/친구/친척 만나기	13.7	26.4▲	18.7	16.6	11.9	4.8▽	7.9▽
놀이/테마공원 온천 등 즐기	5.6	6.6	10.2▲	4.2	1.8▽	7.1	6.2
취미운동 활동 (등산, 낚시, 골프 등)	4.6	3.3	9.4▲	2.5▽	8.4▲	3.3	4.5
역사/유적 감상 (유적지, 박물관 등)	3.6	6.6▲	2.3	5.4▲	4.0	1.8▽	0.6▽
도시 경관 감상 (건축물, 거리 등)	2.4	4.7▲	1.5	1.4	2.2	0.9▽	5.1▲

A4-3. 여행을 하고자 하는 주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만 선택해주시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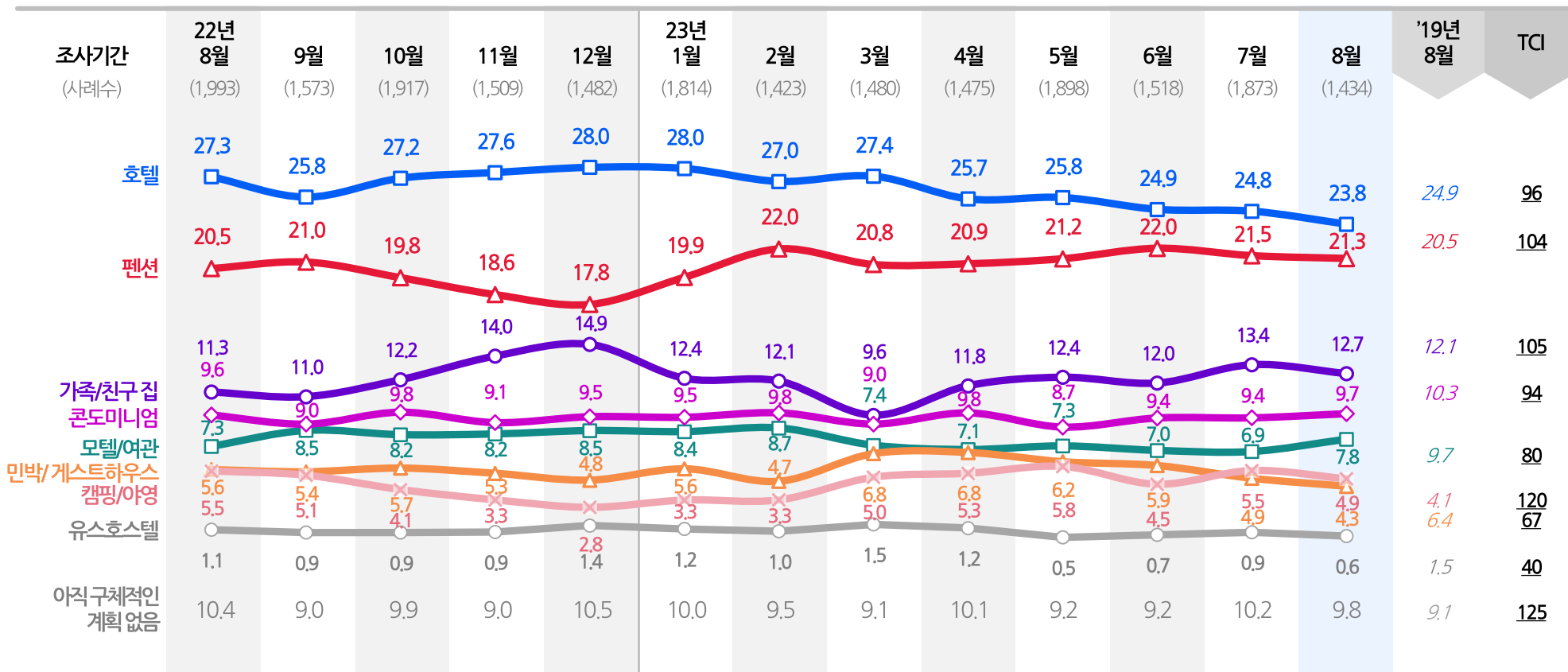
* ▲▽ 표시된 수치는 전체 값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p<0.05)

7. 숙박여행 계획 및 고려 요소

- 숙박 예정 장소는 ‘호텔(23.8%)’, ‘펜션(21.3%)’, ‘가족/친구 집(12.7%)’ 순임.
- 숙박 예정 장소 TCI는 ‘캠핑/야영’이 120으로 코로나 전보다 높음.
- ‘호텔’의 TCI는 96으로 코로나 기간 중의 가수요가 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숙소 선택 시 제1 고려점이 비용임을 감안하면 더 감소할 가능성이 큼.

국내여행 숙박 계획

[단위 : %]



A10. 여행지에서는 주로 어떤 곳에서 숙박하실 계획이십니까? 하나만 선택해주시요

CONTENTS

I. 조사개요

II. 국내여행

II-1. 국내여행 동향

II-2. 국내여행 계획

III. 해외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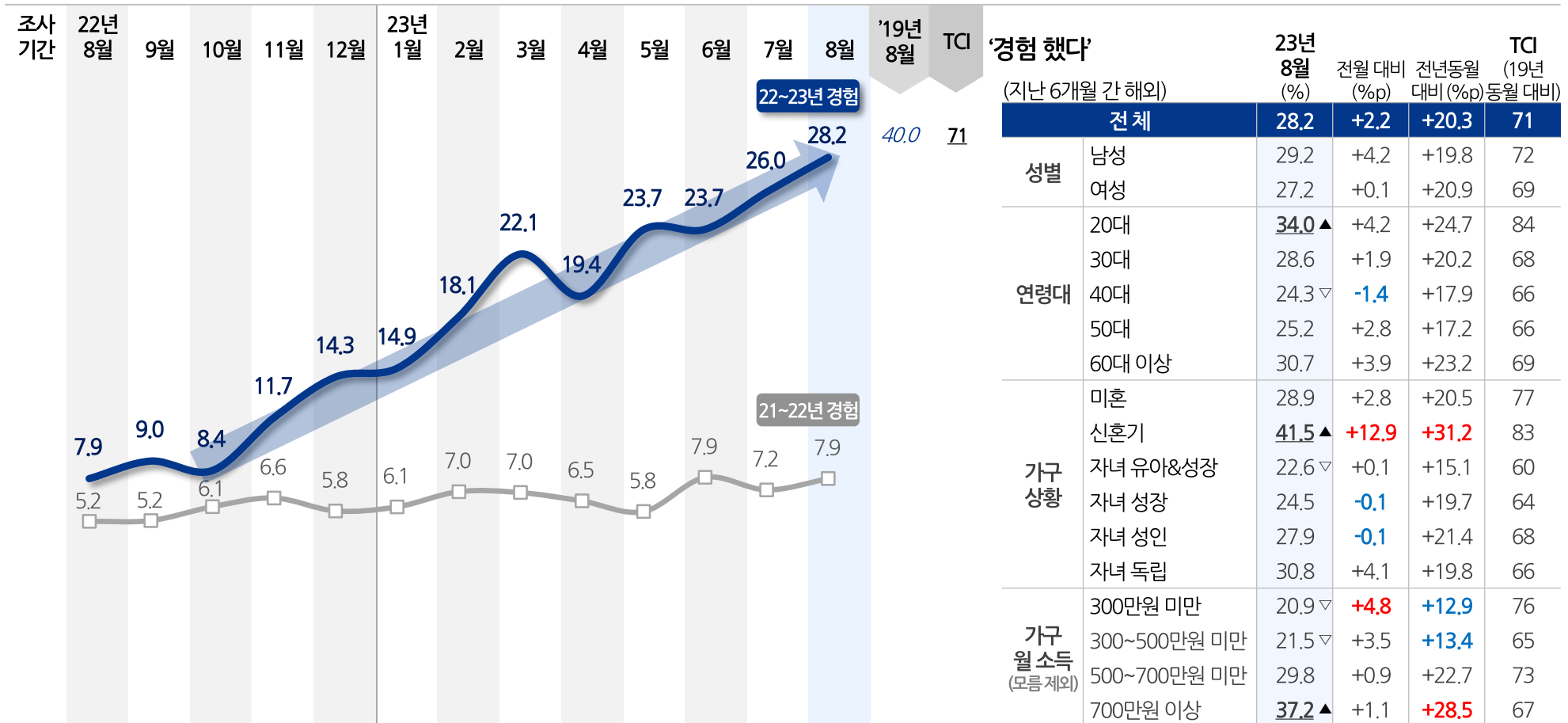
III-1. 해외여행 동향

III-2. 해외여행 계획

1. 해외여행 경험률 (지난 6개월)

- 지난 6개월간 해외여행 경험률은 '22년 11월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해, '23년 8월 28.2%로 올랐음.
- 하지만 해외여행 경험률의 8월 TCI는 71으로 코로나 이전 동월('19년 8월 40.0%)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회복에는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됨.
- △20대 △신혼기 △가구 월소득 700만원 이상의 경험률이 가장 높아, 젊은층과 고소득자들이 해외여행에 더 적극적임을 보여줌.

[단위: %]



※ 조사 표본수: 주 500명, 월 2,000명(5주가 있는 월은 2,500명)
 분석 표본수: 주별 분석은 자료의 안정성을 위해 그 전 주와 단순이동 평균함(1,000명)
 SQ4-0. 귀하께서는 지난 6개월간 1박 이상의 일정으로 해외 여행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 표시된 수치는 전체 값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p<0.05)
 ** 비교%p는 상·하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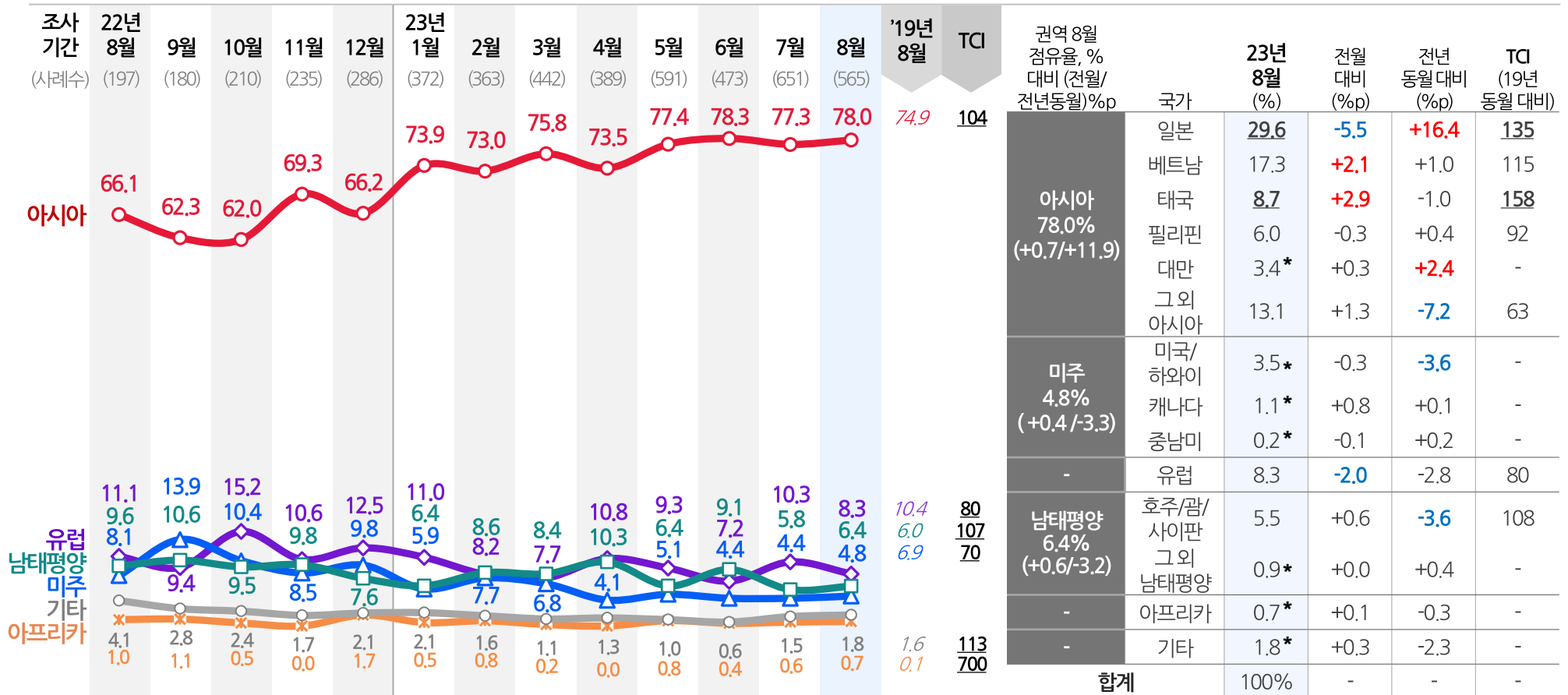
2. 해외여행 지역 (지난 6개월)

III-1. 해외여행 동향

26/40

- 해외여행지 중 아시아의 점유율은 70%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음. 국가별로는 일본(29.6%)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베트남(17.3%)임.
- 코로나 이전과 비교한 TCI는 태국이 15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일본(135)임.
- '19년 7월초 시작된 No Japan 운동을 고려하면 일본의 TCI는 영향 받았을 가능성이 있음.

[단위 : %]



BB2-1. 가장 최근에 다녀온 해외 여행지는 어디입니까? 주로 여행하신 지역을 하나만 선택해주시시오.

* 5% 이하 해석에유의

** 비교%p는 상하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3. 해외여행 기간 및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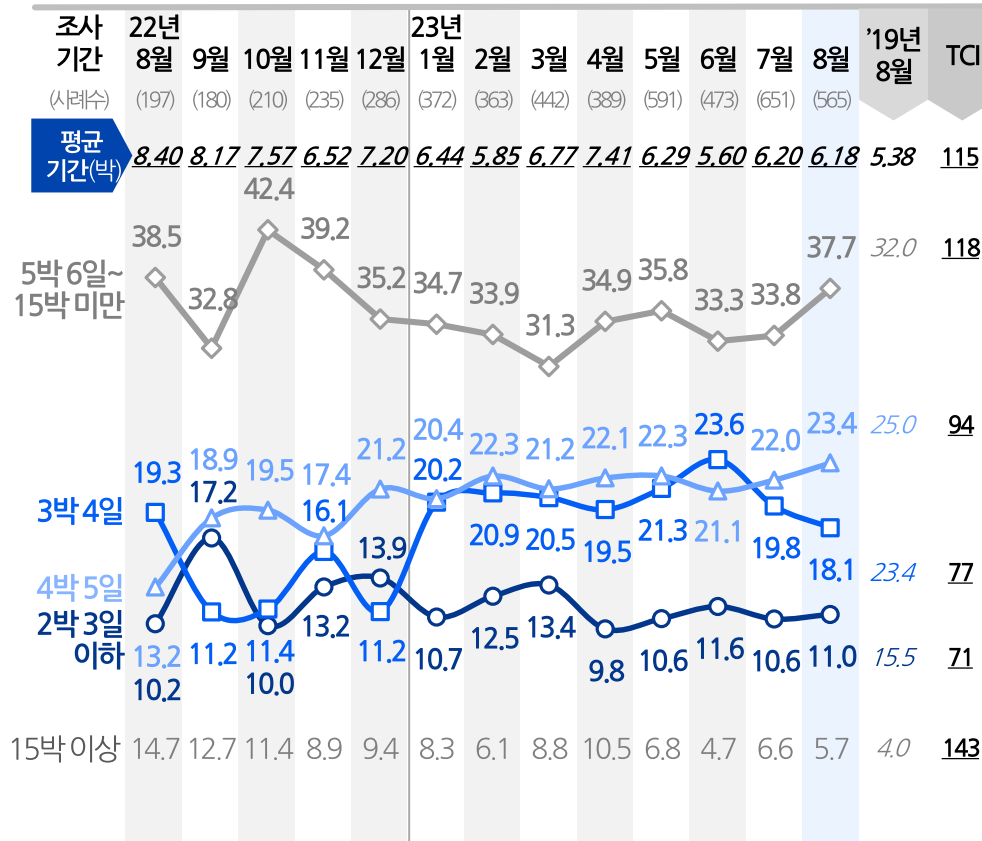
III-1. 해외여행 동향

27/40

- 지난 6개월 간 다녀온 해외여행 평균기간은 6.18박에, 총 비용 183.8만원, 1일당 25.6만원을 지출했음.
- 여행기간, 지출비용의 감소세가 분명하게 나타남. 1년 전인 '22년 8월과 비교하면 여행기간은 8.40박의 73.6%, 총 비용은 209.5만원의 87.7%로 감소했음.
- 근거리(아시아, 특히 일본), 단기간(4박 이하, 58.2%) 여행의 증가가 원인이지만, 코로나 이전에 비하면 아직도 높음.
- 주요 지표의 TCI는 여행기간 115, 여행 총 경비 133, 1일당 경비 119로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길고 비싼 여행을 하고 있음.

여행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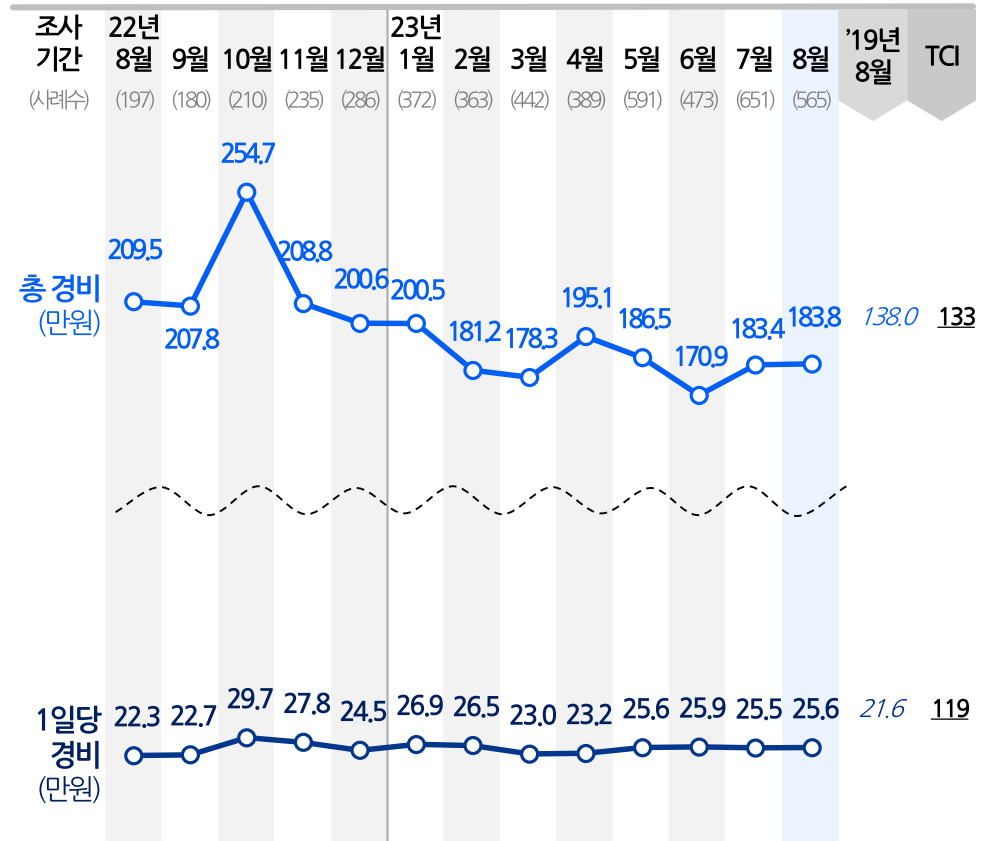
[단위 : %]



BB5-2. 다녀온 'OO'여행 여행 시기를 달력을 보고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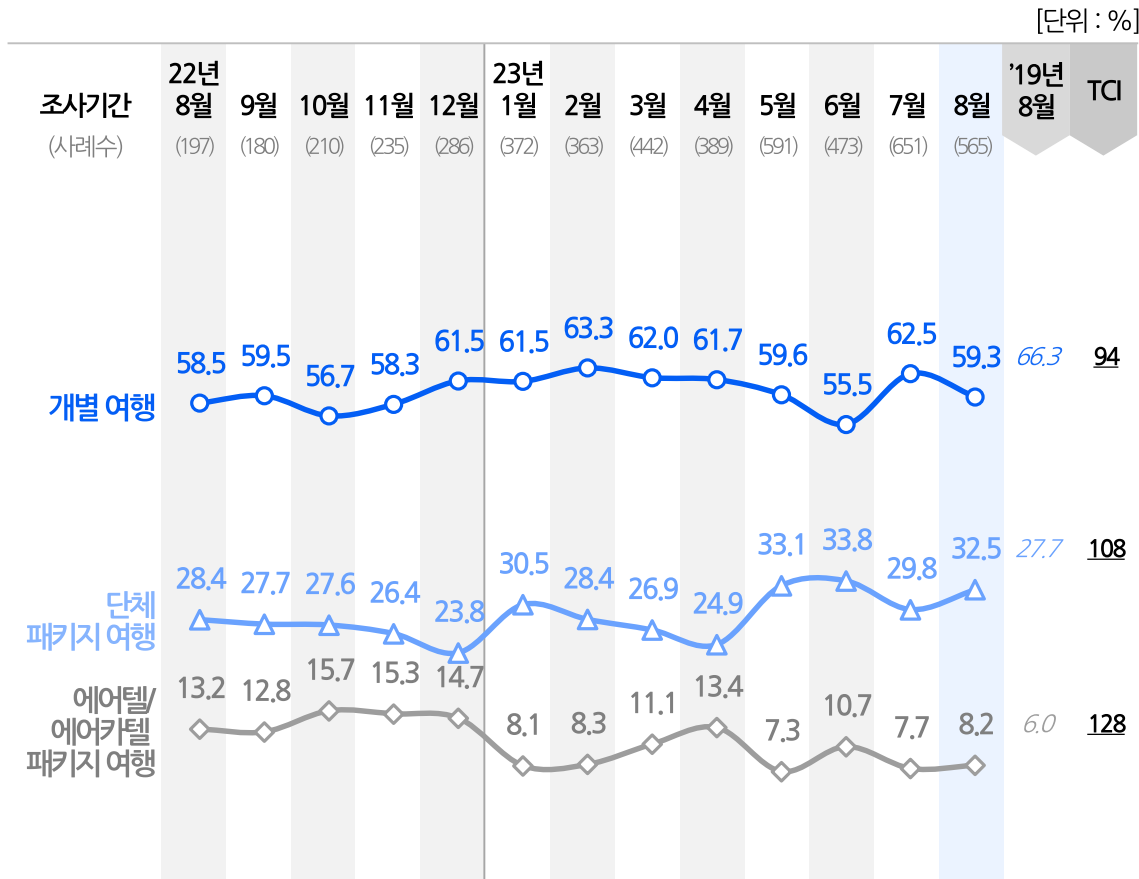
[단위 : 만원]



BB16. 'OO' 여행에서 각 부분들을 위해 대략 얼마정도 지출하셨습니다?

4. 해외여행 형태

- 해외여행 형태는 '개별여행(FIT)'이 59.3%, '단체 패키지'는 32.5%, '에어텔/에어카텔 패키지'는 8.2%였음.
- '개별 여행'은 아시아, '단체 패키지 여행'은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많음.



▶ 여행지역별 여행 형태 (당월 기준)

[단위 : %]

	전체	여행 지역				
		아시아	미주	유럽	남태평양	아프리카
(사례수)	(565)	(441)	(27)	(47)	(36)	(4)
개별 여행	59.3	62.6▲	70.5	31.8▽	52.9	49.8
단체 패키지 여행	32.5	30.4▽	18.4	53.3▲	35.9	50.2
에어텔/에어카텔 패키지 여행	8.2	7.0	11.1	14.9	11.2	0.0

BB8. 'OO'여행은 어떤 형태로 가셨나요?

* ▲▽ 표시된 수치는 전체 값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p<0.05)

CONTENTS

I. 조사개요

II. 국내여행

II-1. 국내여행 동향

II-2. 국내여행 계획

III. 해외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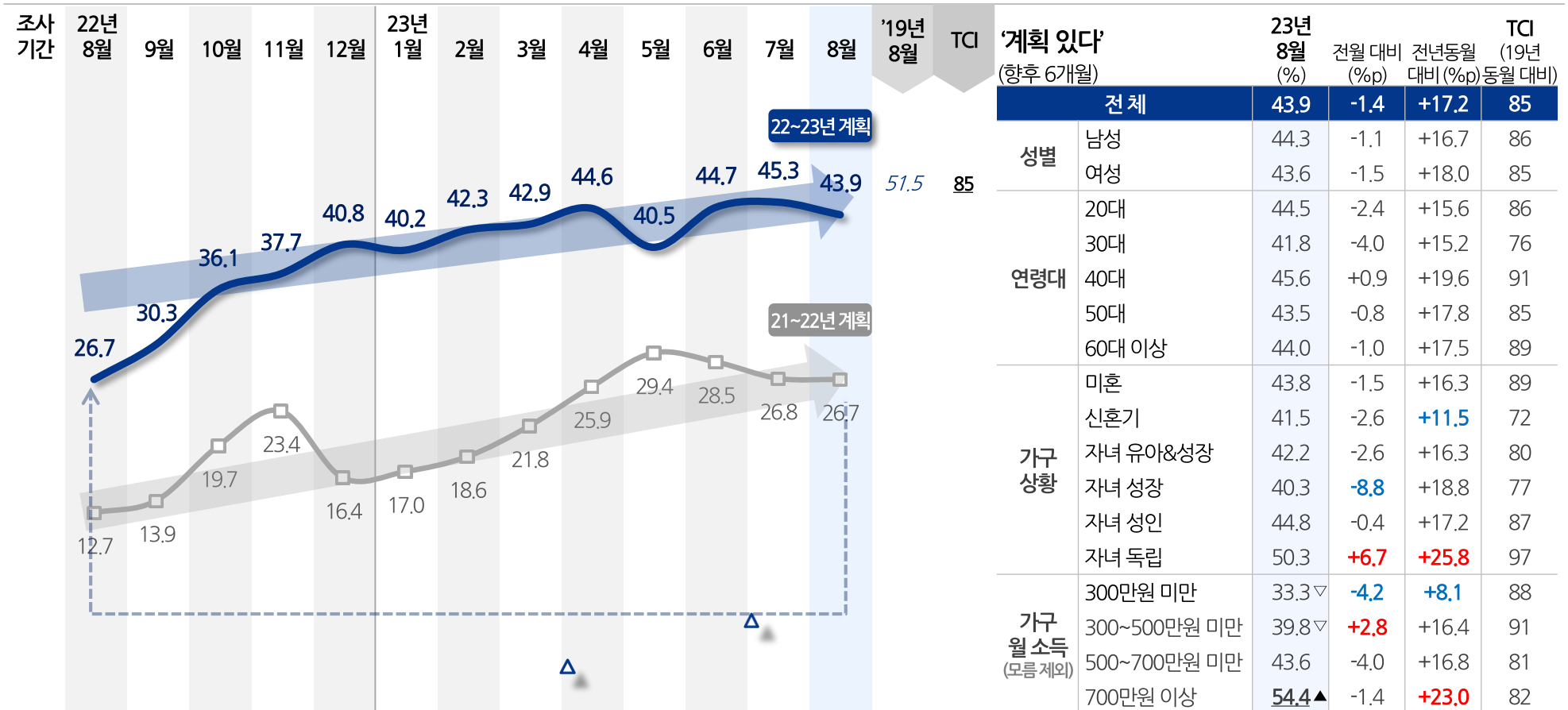
III-1. 해외여행 동향

III-2. 해외여행 계획

1. 해외여행 계획률 (향후 6개월)

- 해외여행 계획률은 '21년 8월 12.7%에서 2년간 꾸준히 상승해 '23년 8월 43.9%에 올랐음.
- 코로나 이전 동월(51.5%) 대비 해외여행 계획률 TCI는 85로 아직 낮은 수준이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추정됨.
- △가구 월 소득 700만원 이상에서 해외여행 계획률이 가장 높아, 해외여행이 경제적 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줌.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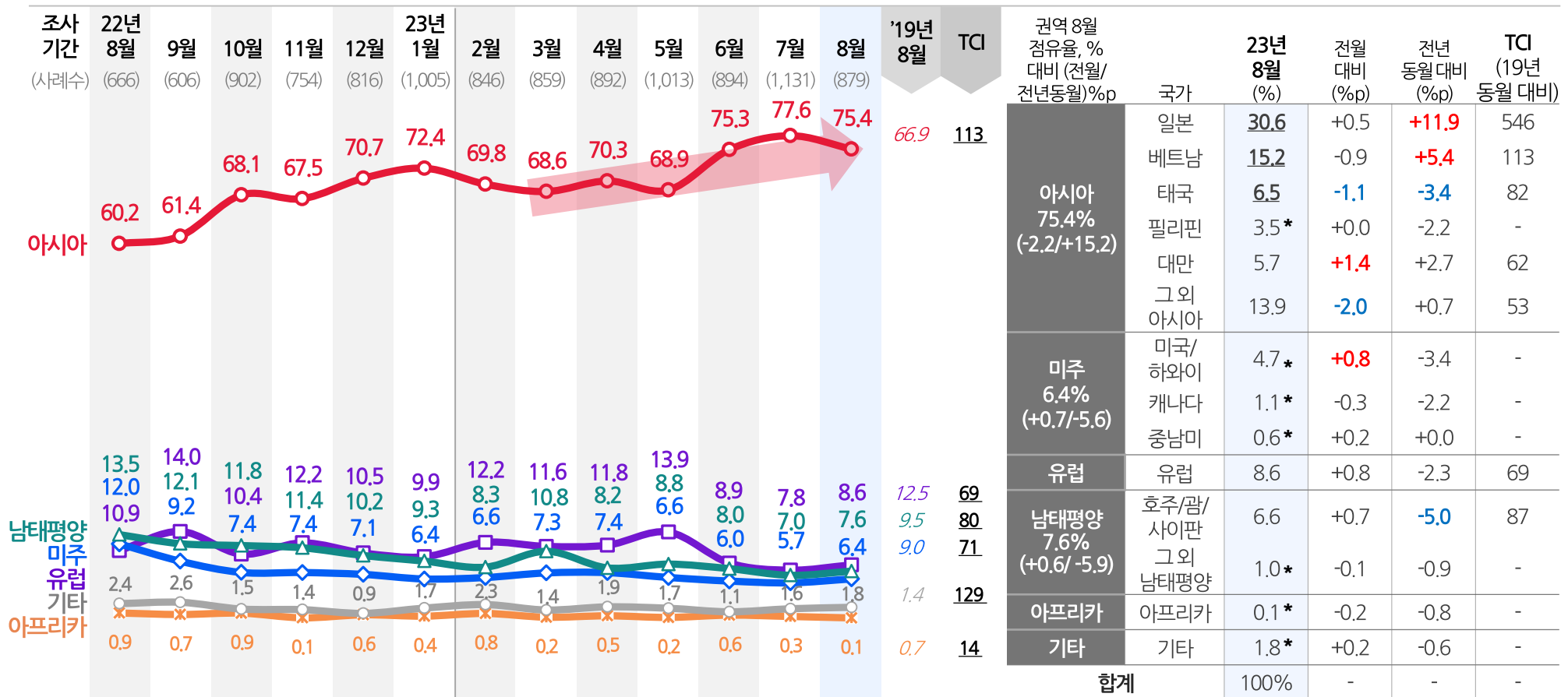
SQ4. 귀하께서는 향후 3개월 내 1박 이상의 일정으로 여행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SQ4-1. 그렇다면, 향후 6개월 내 1박 이상의 일정으로 해외 여행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 ▲▽ 표시된 수치는 전체 값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p<0.05)
 ** 비교%p는 상하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2. 해외여행 예정 지역 (향후 6개월)

- 해외여행 예정 지역 점유율은 '아시아'가 75.4%로 압도적이며, '일본(30.6%)', '베트남(15.2%)', '태국(6.5%)' 순으로 높음.
- 아시아 다음으로 '유럽(8.6%)', '남태평양(7.6%)', '미주(6.4%)'의 순임.
- 해외여행 예정지 점유율의 TCI는 아시아(113)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19년 동월 대비 낮은 상황임.

[단위: %]



B2-1.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해외 여행지는 어디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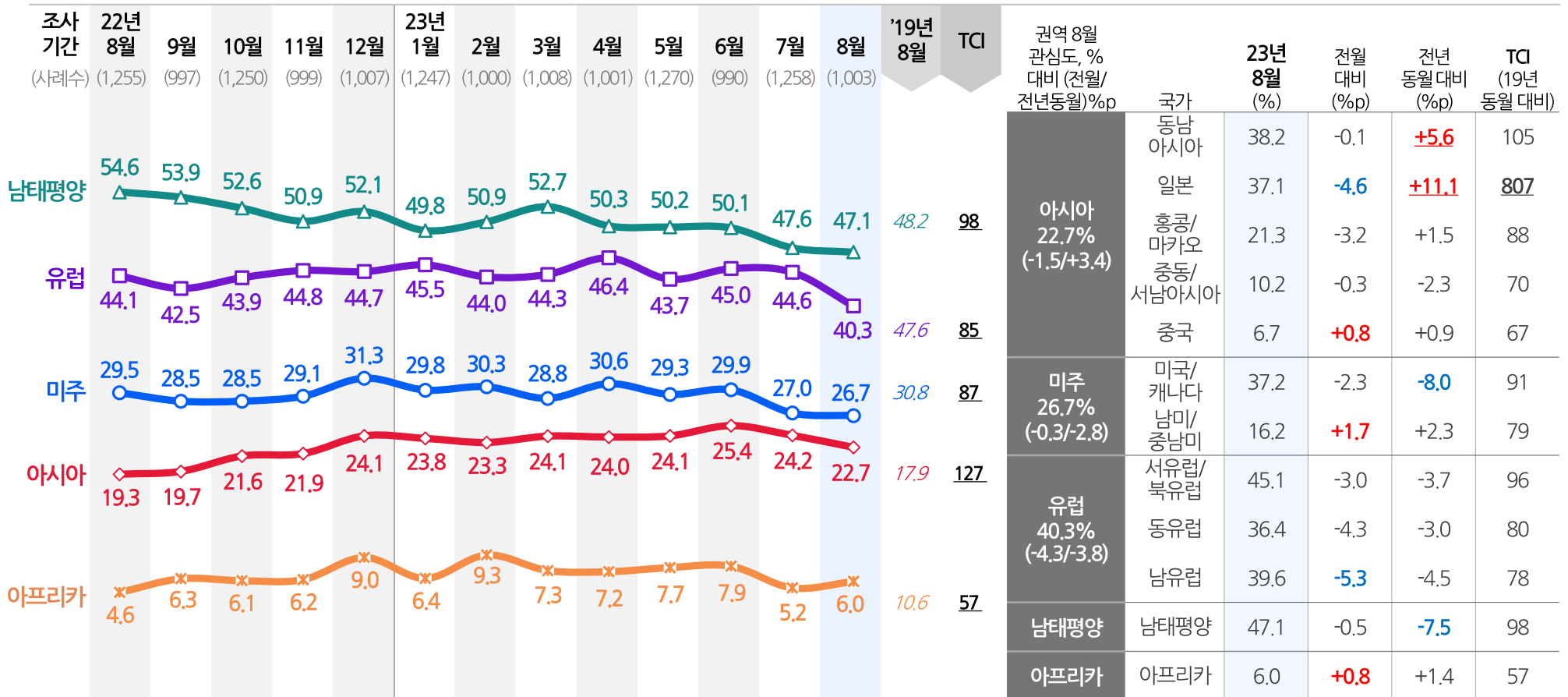
B2-2.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시기에 여행 목적지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큰 해외 여행지는 어디인가요?

* 5% 이하 해석에유의
* 비교%p는 상·하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3. 해외여행 지역 관심도

- 해외여행 지역 관심도(%,'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아졌다')는 '남태평양(47.1%)', '유럽(40.3%)', '미주(26.7%)' 순임. 실제 여행 가능성 보다는 희망사항 성격이 강함.
- 아시아권 내에서는 동남아시아와 일본의 관심도가 전년 동월 대비 5.6%p, 11.1%p씩 크게 상승함.
- 해외여행 지역 관심도의 TCI는 아시아만 127로 높았고, 이외 지역은 모두 코로나 이전 보다 관심도가 떨어진 상황임.
- 국가별 TCI는 일본이 807으로 압도적으로 높았음('19년 7월 No Japan 캠페인에 따른 특수 현상임).

[단위 : Top2 bo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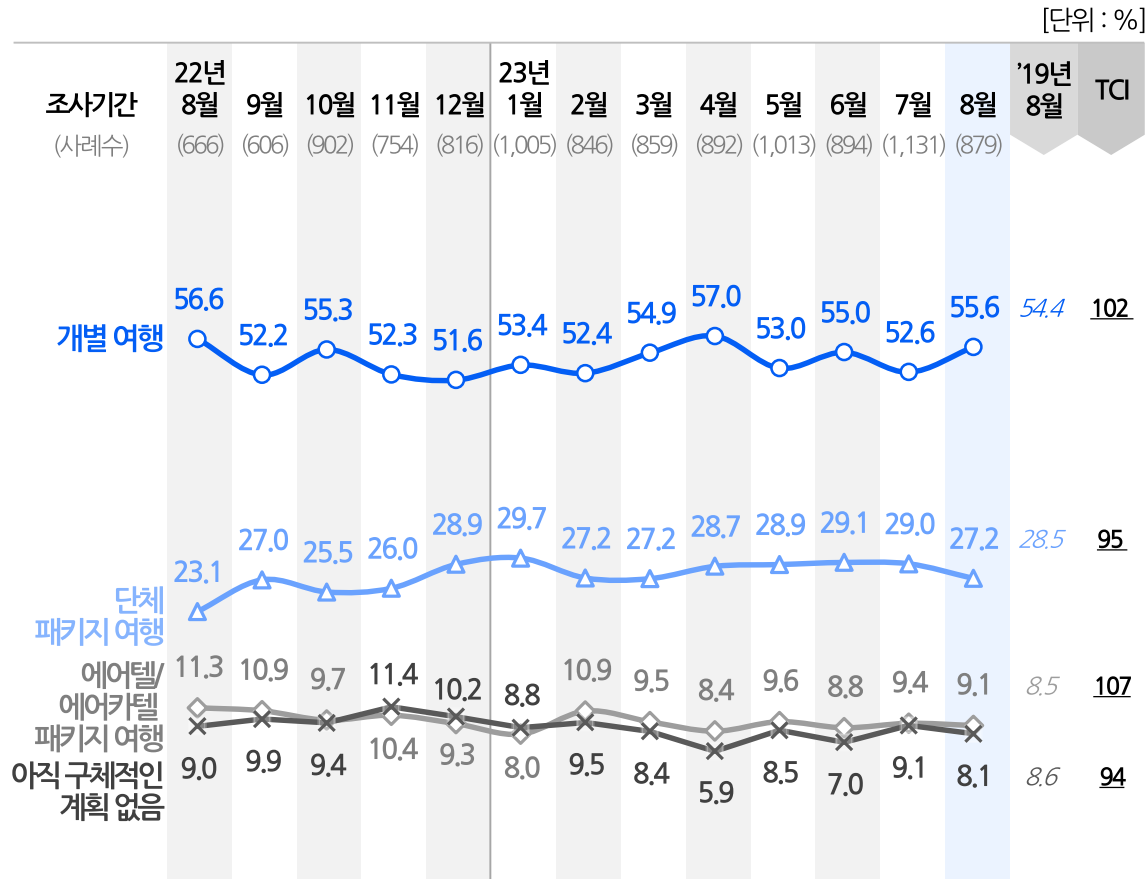


SQ3-1. 요즘 000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예전에 비해 ... (5점 척도)

* 비교%p는 상하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 권역 관심도는 해당 권역 내 지역 관심도의 산술평균임

4. 선호 해외여행 형태 (향후 6개월)

- 선호하는 해외여행 형태는 '개별 여행(FIT)' 55.6%, '단체 패키지' 27.2%, '에어텔/에어카텔 패키지' 9.1% 순임.
- 특히 '개별여행'은 아시아, '단체 패키지'는 유럽, '에어텔/에어카텔 패키지'는 남태평양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여행지역별 선호 여행 형태 (당월 기준)

[단위 : %]

	전체	여행 지역				
		아시아	미주	유럽	남태평양	아프리카
(사례수)	(879)	(663)	(56)	(76)	(67)	(1)
개별 여행	55.6	57.8▲	64.3	43.6▽	44.8	0.0
단체 패키지 여행	27.2	25.2▽	21.3	44.6▲	28.4	100.0
에어텔/에어카텔 패키지 여행	9.1	8.3	12.5	7.9	16.4▲	0.0
아직 구체적인 계획 없음	8.1	8.7	1.8	4.0	10.4	0.0

B8. 'OO' 여행은 어떤 형태로 갈 생각이신가요? (개별여행/단체 패키지/에어텔-에어카텔)

* ▲▽ 표시된 수치는 전체 값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p<0.05)

참고 자료



[참고] 코로나와 여행 환경 이슈

[참고] I. 코로나와 여행 환경 변화

*㉠ 코로나19 관련 이슈, ㉡ 여행 관련 이슈 35/40

2020년	01월	㉠ 중국(우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집단 발병(2019.12) 이후 국내 첫 확진자 발생(2020.01) ㉠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포
	02월	㉠ 국내 집단 감염 발생 및 대규모 유행 등으로 전국 확산 ㉡ 특별입국절차(코로나19 국외 유입 및 확산 방지 목적 국내 입국 내외국인 검역 시행 절차) 시행 ㉡ 일부 국가(이스라엘, 요르단 등) 한국인 입국금지 실시
	03월	㉠ 코로나19 관련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2020.03 ~ 2022.04, 상황별/단계적 실시) ㉡ 해외 대부분 국가·지역 한국발 입국금지
	12월	㉠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강화 (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발효) ㉡ 5개 항공사 국제선 운항중단(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플라이강원)
2021년	02월	㉠ 국내 백신 접종 시작
	11월	㉠ 위드코로나(방역 완화 등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12월	㉠ 국내 오미크론 변이 환자 발생 및 확진자 급증 ㉠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강화(사적 모임 제한 4명으로 축소)
2022년	01월	㉡ 트래블버블(코로나19 감염 안전 평가 국가에 한해 자유로운 관광을 허용하는 제도) 국가 확대
	03월	㉠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완화(사적 모임 인원 8명까지 확대) ㉡ 해외입국 자가격리 의무 면제
	04월	㉠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05월	㉠ 해외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10월	㉡ 국내 입국자 PCR검사 의무 해제 및 국제선 항공기 운항 수 제한 해제
	12월	㉡ 정부, 내수활성화대책 100만명에 휴가비 600억 지원 발표
2023년	03월	㉡ 정부, 코로나엔데믹 선언; 6월부터 방역 규제 및 격리 의무 해제
	05월	㉠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하향(격리 5일 권고 전환)
	08월	㉠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4급 감염병으로 하향 전환 ㉠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2023년 8월

1주	08. 07 ~ 08. 13	태풍 카눈, 북상
		하와이 대형 산불 발생
		중국 정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자국민 해외 단체여행 허용
		2023 새만금 제 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폐영식 (08.11.)
2주	08. 14 ~ 08. 20	광복절 (08.15)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
		공항,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만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상향
		78주년 광복절 기념 역사문화축제 '2023 서대문 독립축제' 개최 2023 세계태권도문화축제 강원도 춘천에서 개최(08.18~08.24)
3주	08. 21 ~ 08. 27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초·중고등학교 개학
		2023 카스쿨 페스티벌(CassCool Festival)
		제11회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BICF)' 개막(08.23~09.03)
4주	08. 28 ~ 09. 03	전국 대학교 개강(2학기)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4급 감염병으로 하향 전환
		충남 예산시, '2023 예산맥주 페스티벌' 개최(09.01~09.03)
		외교부, '군부 쿠데타' 발발한 아프리카 가봉에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2023 몽골 한국 의료 관광대전 개최

2023년 7월

1주	07. 03 ~ 07. 09	전국 폭염 특보
		공룡엑스포,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07.08~08.27)
		'2023 세계 합창대회', 강릉에서 개최(07.03~07.13)
2주	07. 10 ~ 07. 16	전국 호우 특보
		인천국제공항, 안면인식 출국 서비스 '스마트패스' 사전등록
		서울 아트페어 어반브레이크 2023 개막(07.13~07.16)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2023(07.13~07.16) 2023 KBO 리그 올스타전 개최(07.15)
3주	07. 17 ~ 07. 23	서울 포함 내륙 지방 폭염주의보, 경북 예천, 충북 청주 등 13개 지역 특별 재난 지역 선포
		문화체육관광부, 코리아서머뷰티 세일 개최(07.20~08.20)
		국제 아웃도어 캠핑&레포츠 페스티벌 서울(07.21~07.23)
4주	07. 24 ~ 07. 30	전국 폭염 경보·열대야 및 호우특보
		신림, 분당 등 잇단 묻지마 범죄 발생
		보령머드축제 개막 (07.21~08.06) 강원도 곳곳서 여름 축제 개최(홍천, 화천, 태백, 속초, 철원 등)
5주	07. 31 ~ 08. 06	전국 폭염 경보·열대야
		2023 새만금 제 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개최
		2023 인천 펜타포트 락페스티벌 개최(08.04~08.06)

컨슈머인사이트 여행 홈페이지에서 더 다양한 여행/문화/스포츠 관련 이슈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onsumerinsight.co.kr/leisure-travel/r_issue

Thank You